2022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목 차

행사 프로그램 03

함께한 사람들(2020-2022) 04

환영 인사말 05

레오 르페뷔르(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공동의장)

축하 메세지 06

최은상(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장)

평화 메세지 07

김성곤(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기조연설 08

마크 유노(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회장)

특별 대담 14

마크 유노(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회장)

하쿠가 무라야마(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장)

평화 대화 18

(좌장) 레오 르페뷔르

(패널) 캐롤린 존스 메인, 줄리우스-케이 카도, 쿠니히코 테라사와

사회정의 대화 27

(좌장) 장지해

(패널) 김태성, 로리타(키지아) 카스틸로, 이준석

종교 이해 37

(좌장) 무이치온

(패널) 포위파, 티케휘, 세드릭

종교와 평화 대화 46

(좌장) 한영훈

(패널) 박뾰뚜르, 김영주, 조원형

지식 대화 54

(좌장) 허석

(패널) 정우탁

고위급 대담 62

(패널) 박도연, 아자 카람

종합토론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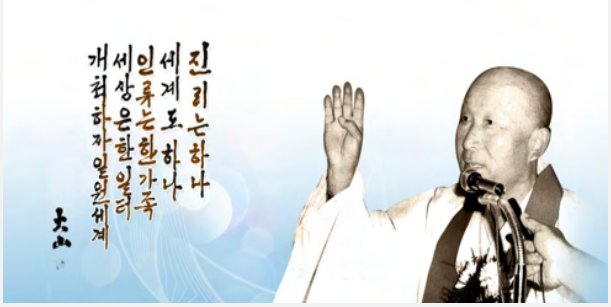
(좌장) 조경원

(패널) 사영인(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공동의장)

이순영(한국 포콜라레 종교 간 대화 고문)

특별 에세이 74

레오 르페뷔르(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공동의장)



종교연합 제창 50주년

대산종사는 원기 55년(1970) 일본에서 열린 제1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에 사람을 보내어 전 세계 종교인들 앞에서 '세계평화 3대 제언'을 제창(하였다. 그 다음 해인 원기 56년에 원불교 개교 반백년 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종교인들을 초대한 가운데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제의하였다. 이에 세계종교인들 앞에서 종교연합운동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1970년을 종교연합 제창 원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계평화 3대 제언

종교연합 창설

우리 모든 종교인들은 합심합력해서 정치 UN에 대등한 종교 UR을 창설시켜서 인류에 대한 영과 육의 빈곤·질병·무지를 퇴치시킬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갖자

공동시장 개척

우리 모든 인류가 나라와 사상의 울을 넘어서서 공동시장을 개척하여 생존경쟁보다 서로 공생 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심전계발 훈련

우리 모든 인류가 묵어 있는 마음 밭을 계발하고 훈련시켜 마음을 크게 넓히고 밝히고 잘 쓰는 슬기로운 새 나라 새 세계를 만들자

발행인 사영인
발행처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주 소 서울 동작구 현충로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9층
발행일 2022. 11. 28.
편집인 김태우
감 수 황상원

행사 프로그램

2022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프로그램

2022년 10월 8일(토)

10:00-11:30	개회식	- **주제 영상** -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 정제경(원불교 교무) - **환영인사말** 레오 르페뷔르(ICCGC 공동의장,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 **축하메세지** 최은상(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장) - **평화메세지** 김성곤(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 **기조연설** (주제) "종교와 문명 :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와 치유" (연사) 마크 유노(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회장, 오레곤대학교 교수) - **특별대담** (좌장) 테라사와 쿠니히코(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패널) 마크 유노(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회장), 하쿠가 무라야마(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장)
11:45-13:00	세션 1.	- **세션 1. 평화 대화** (주제) "인종주의 종식과 평화 구축" (패널) 레오 르페뷔르(조지타운대학교 교수)/좌장, 캐롤린 존슨 메딘(조지아대학교 교수) 줄리우스-케이 카토(웨스턴대학교-킹스칼리지 부교수), 테라사와 쿠니히코(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14:00-15:15	세션 2.	- **세션 2. 사회정의 대화** (주제) "판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낙인과 갈등 해결을 위한 신앙과 영성 리더십" (패널) 장지해(원불교신문사 편집부장)/좌장, 김태성(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로리타 카스틸로(포콜라레 동양종교와 대화 소장), 이준석(평화 상임이사)
15:30-17:00	세션 3.	- **세션 3. 종교 이해** (주제) "불교 배우기: 음악을 통한 영적 전도" (패널) 무이치온(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부회장/좌장, 티케휘(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원) 세드릭 탄(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부회장), 포위파(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원)

2021년 10월 9일(일)

13:00-14:15	세션 4.	- **세션 4. 종교와 평화 대화** (주제) "종교와 긴급구호 : 우크라이나에서의 종교 간 협력 사례" (패널) 한영훈(원불교 예비교무)/좌장, 박뾰뚜르(아사달 대표), (패널) 김영주(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조원형(세계봉공재단 교무)
14:15-15:15	세션 5.	- **세션 5. 지식 대화(ICCGC Talks 1)** (주제) "트렌드 리뷰 : 세계시민성을 위한 변혁적인 교육" (패널) 허석(원광대학교 교수)/좌장, 정우탁(GPE 한국대표)
15:30-16:30	세션 6.	- **세션 6. 고위급 대담(ICCGC Talks 2)** (주제) "종교와 문명의 위기 : 글로벌 도전과 종교적 대응" (패널) 박도연(유엔종교NGO위원회 의장), 아자 카람(Religions for Peace 사무총장)
16:30-17:00	클로징 세션	- **종합토론 및 폐회사** (주제) "평화를 위한 종교연합 : 미래를 위한 포콜라레운동과 종교연합운동" (패널) 조경원(한울안신문 편집장), 사영인(원불교 유엔사무소 소장), 이순영(포콜라레 종교 간 대화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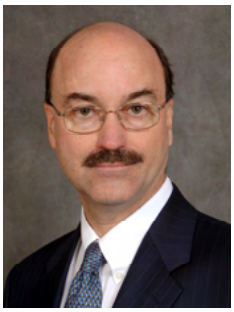
함께한 사람들(2020-2022)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참여자 리스트(2020-2022)

*직책은 행사 참여 당시 기준, 현재와 상이할 수 있음

01. 최준명(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장)
02. 최은상(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장)
03. 김성곤(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04. 이리바 보코바(前 유네스코 사무총장)
05.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06. 사영인(ICCGC 공동의장, 원불교 유엔사무소 소장)
07. 레오 르페뷔르(ICCGC 공동의장,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08. 김효철 (원불교 유엔사무소 소장)
09. 정우탁(GPE 한국대표, 前 UNESCO APCEIU 원장)
10. 모니카 플뢰러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대표)
11. 아자 카람(세계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12. 사카이 노리오 (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위원장)
13. 리베라토 바우티스타(유엔NGO협의회 대표)
14. 칼 무렐(UN Values Caucus 공동의장)
15. 사쿠라이 히로(유엔종교NGO위원회 의장)
16. 박도연(유엔종교NGO위원회 공동의장)
17. 아니 샤카 (세계불교대학교 명예총장)
18. 캄마이 담마사미 (샨스테이트불교대학교 총장)
19. 박도광 (원광대학교 동양대학학원 원장)
20. 바거스 락사나(산타나달마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21. 무 무 미윈트(양곤대학교 오리엔탈학과 학과장)
22. 수잔 헨더샷(Interfaith Power&Light 대표)
23. 엘레인 돈린(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위원회 이사)
24. 김태성(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25. 수잔 에니스(호주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26. 수파멧 윤야싯(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27. 수각 정사(세계불교도우의회 상임위원)
28. 요 상-츄(세계불교도우의회 상임위원)
29. 조니 칼리(Kosmos Journal 유엔대표)
30. 아이작 토마스 (United Religions Initiative 국제이사)
31. 카미야 마사미치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시니어자문관)
32. 시다스 우제이 (하와이 기후평화연구소 자문관)
33. 남궁문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34. 제임스 퍼슨(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35. 마츠이 캐시(세이센대학교 교수)
36. 캐롤린 존스 메딘(조지아대학교 교수)
37. 카토 줄리우스-케이(킹스칼리지-웨스턴대학교 부교수)
38. 마리아 웡(호놀룰루 샤미나드대학교 부교수)
39. 테라사와 쿠니히코(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40. 박 소피아(홀리네임스대학교 부교수)
41. 허석(원광대학교 부교수)
42. 로리타 카스틸로(포콜라레 동양종교와 대화 소장)
43. 이순영(한국 포콜라레운동 종교간 대화 고문)
44. 김선명(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45. 김영주(남북하나재단 이사장)
46. 이준석(평화 상임이사)
47. 하쿠가 무라야마(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장)
48. 무이치온(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부회장)
49. 세드릭 탄(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부회장)
50. 포위파(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원)
51. 티케휘(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원)
52. 에밀리 페리(옥스퍼드대 박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자문관)
53. 이사호(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청년자문관)
54. 김범현(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공동사무차장)
55. 황상원(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공동사무차장)
56. 이태은(원불교 환경연대 집행위원장)
57. 장지해(원불교신문사 편집부장)
58. 조경원(한울안신문 편집장)
59. 국지훈(원불교 정책연구소 연구원)
60. 오경석(원음방송 라디오PD)
61-70. 청년 참여자(총 10명)
강지영(원불교), 전혜복(원불교), 조여주(원불교), 한영훈(원불교)
백지연(가톨릭), 이성영(가톨릭), 백현빈(개신교), 이재선(천도교)
마츠다 사야코(입정교성회), 아라이 마사키(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환영 인사말



레오 르페뷔르
미국 조지타원대학교 교수
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前 회장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공동의장

인사말

제3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종교와 문명 : 모두를 위한 사회 정의와 치유”입니다. 저는 판데믹 기간 동안 상처받은 사회와 첨예하게 도전 받은 정의들을 돌이켜보며,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6세기 경 중국의 위대한 불교 지도자였던 천태대사 지의(Zhiyi)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훌륭한 종교적 전통 아래서 성장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유교 학자였으며, 그의 어머니 집안은 도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그는 불교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후대에 ‘멈추고 보라(止觀)’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유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쥐려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멈추고 보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마음챙김)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은 멈추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상을 멈출 수 있습니다. 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이 켜집니다.

오래 어둠이 있었지만, 불이 켜지만 램프가 켜지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메세지

최은상
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장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반갑습니다.

세계 각지 그리고 한국에서 종교 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 세계를 열고자 하는 굳은 의지로 2022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 19 이후로 국제사회의 혼란을 경험한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흩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진 세상과 문명의 위기를 세계 시민의 주제를 극복하고자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종교와 문명 모두를 위한 사회 정의와 치유의 주제로 첫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공동 주최로 함께해 주신 sbcs 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와 협력팀으로 세션을 맡아주신 세계불교도 청년우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보내며 어려운 일정 속에도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신 원불교 유엔사무소 사단법인 평화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더불어 후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원음방송 및 종교연합 후원재단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3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유엔세계평화의 날 공식 주제와 연결된 인종주의 종식과 평화 구축의 소주제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유엔 종교화합 주간의 공식 주제 글로벌 대화 주제, 종교와 문명의 위기를 넘어 글로벌 도전과 종교적 대응 및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대담과 토론으로 코로나 이후 인류 사회가 당면한 고통과 단절에 대하여 세계 시민의 하나가 된 의식으로 극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 도덕을 회복하고 세계 윤리를 보편화하며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장 및 한 국가의 기업인이자 시민의 일원으로 평화의 소중한 씨앗을 심어가는 이 자리에 지속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메세지

김성곤
아시아종교평화회의 명예회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간 인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또 생활의 행동이 제한되는 등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더 행복해질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는 기후 변화를 초래했고 이는 악성 바이러스에 출연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인류는 더 불행해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백신의 개발로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팬데믹의 근본 원인인 환경 파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인류는 앞으로 또 다른 악성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운 경고로 받아들이고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이 아시아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아시아인들이 테러를 당하는 인종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개발된 백신이 부자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접종되고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소외되면서 인류는 다시 한 번 지구촌의 빈부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파키스탄의 대홍수에서 보았듯이 물질문명의 최대 피해는 결국 가난한 나라 가난한 계층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의와 사랑을 사랑하는 인간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그리고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는 정의를 강조하고 있고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는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종교는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고하고 물질적 행복보다는 정신적 행복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인류는 종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때입니다.
종교가 외형적 발전에 급급하여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인류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은 또 종교의 책임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물질문명의 폐해와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을 돌아보고 그 치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 연설

마크 유노
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회장
미국 오레곤대학교 교수

〈종교와 문명 :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와 치유〉

들어가며

올해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ICCGC)의 주제인 "종교와 문명: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와 치유"는 한편으로는 시기적절하고 이상적으로 현 시점에 적합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벅찬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연설하게 되어 겸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하고 싶은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주한 역사적 순간, 예를 들어, 종교 내 및 종교 간 대화와 지금 이 순간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사회정의와 치유의 문제에 대한 수순하게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참여와 종교적 참여 사이의 차이, 그리고 관련한 맥락에서의 깊은 경청의 필요성도 포함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이 마지막 두 가지 주제, 즉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한 세속적인 참여와 종교적 참여의 차이, 그리고 이 맥락에서 깊은 경청의 필요성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전에 저는 위대한 미국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편지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 자신의 자아의 결점을 통해서만 누구를 진정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서로를 보는 방식이다. 허영심, 두려움, 욕망, 경쟁 – 우리 자신의 자아 내에서 그러한 모든 왜곡 – 우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조건화한다. 우리 자신의 자아에 이러한 왜곡을 더하면 다른 사람의 자아에 해당하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유리가 얼마나 흐려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불투명한 층을 모두 태워버리고 서로의 벗은 마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사랑하는 두 사람의 드문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살아 있는 관계에서 그런 것이다." (윌리엄스 2004:94-95).

이 편지는 원래 윌리엄스가 연예계의 친구이자 동료인 엘리아 카잔에게 쓴 것입니다. 그것은 윌리엄이 우리 자신의 자아 애착의 왜곡으로 인해 서로를 진정으로 정직하게 보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제시하는 성찰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없고, 깊은 인연을 맺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으며,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맥락

그럼에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대 중국, 양극화 시대의 부자 대 가난한 사람, 가진 자 대 못 가진 자,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로 더욱 분열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국제 사회가 정치적, 군사적 긴장과 갈등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롭게 구축된 세계화 시대의 자유국제질서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국제적 지역화, 권위주의 정권의 부상, 더 큰 수준의 구조적 인종주의, 그리고 아직도 중요한 방식으로 수그러들지 않은 증가하는 기후 변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여성의 자치에 대한 제한과 도전 등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아 왜곡을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현대의 새로운 환경에서 태동한 새로운 형태의 불교 중 하나인 원불교의 사상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 전통적인 계급체제-사회 고위 계층, 왕실 및 황실, 또는 정부와 같은 제도적 영향을 덜 받은-에서 탈피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불교는 빈곤과 성 불평등과 같은 관련된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원칙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타 종교에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새로운 형태의 불교의 출현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입정교성회(Rissho Kosei-kai)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와 원불교

한편 원불교는 비록 새로운 형태의 불교이기는 하지만, 동아시아 대부분의 불교의 지배적인 형태인 대승불교의 기반 위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며, 이상계(realm of form)와 현상계(world of appearances)에서 말의 공허함(emptiness)과 하나됨(oneness)의 실재(reality)에 대한 보다 깊은 진리를 깨닫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금강경에 기초하고 있다. 현실의 하나됨의 깊은 흐름의 실현과 더불어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해탈시키겠다는 보편적인 맹세인 법인(bodhisattva vow)이 있습니다. 보살 서원은 두 가지 진리와 함께 진행된다. 사람이 말의 공허함을 깨달을 때, 우리를 나누는 경향이 있는 범주인 "남자"와 "여자", "아시아인"과 "서양인", "불교인"과 "기독교인" 모두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집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들, 사실상 모든 존재들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나는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이 외모의 세계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즉 성차별의 형태로 사회적 불의를 볼 때, 우리는 그러한 불의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 전체 인간 가족, 궁극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모든 생명체와 하나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회정의와 보살 서원

대승불교의 보살 서원이 사회정의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러한 불교적 개념을 주로 서구적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사회정의의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구의 사회 정의 운동을 고려할 때,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공유되진 않더라도 광범위하게 공유됩니다. 첫째, 간과되고 억압받으며 목소리가 억압된 사람들이 겪는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둘째, 억압받고 차별받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에 대한 긍정이다. 예를 들어, 1920년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은 미국을 포함하여, 20세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미투(Me-Too)와 타임스업(Times-Up) 운동을 통해 성희롱과 성폭행이 미국에서 훨씬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남성들이 이러한 운동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동맹이었지만, 여성과 성별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은 여성들이 여성 참정권 운동을 주도하고,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성병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그들이 한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 미국의 시민권 운동과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주목을 받은 블랙 라이프 매터와 같은 운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여성의 권리와 인종 정의 모두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삶, 흑인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인 성적 정체성과 지향, 그리고 유색인종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대승불교의 보살 서원이 여성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박탈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회적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대성에서 발생한 사회정의운동과 고전적인 보살 서원의 형성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영생의 정토경(Pure land Sutra of Eternal Life)이나 유마경(The Holy Teaching of Vimalakirti) 같은 많은 대승불교 경전에서 발견되는 고전적인 공식에서, 안도감에서 두드러지는 서약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보살은 모든 존재가 스스로 해탈과 각성을 이루기 전에 해탈을 맞이할 것을 서원합니다. 둘째, 해탈의 목표는 삶과 죽음의 영역인 윤회(samsara)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종류의 불교적 각성은 삶과 죽음의 구별을 넘어 공허함과 우주적 일체성이라는 가장 깊은 진리의 수준에서 일어나며, 삶과 죽음의 인간 구성의 적용 이전에 현실적 일체성의 깊은 흐름의 실현입니다.

기조 연설

모든 민족의 물질적, 사회적 요구, 실로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이 보살 서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심적인 초점은 이 현상계, 심지어 삶에 대한 애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애착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영적 또는 종교적 해탈에 있습니다! 보살은 생사를 초월한 이러한 영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존재를 해탈로 인도하고, 다른 모든 존재가 먼저 간 뒤에야 비로소 스스로 해탈을 이룰 것을 서원합니다. 그 이유는 공허함과 하나됨의 실현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해탈을 이루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깨우치거나, 깨어나거나, 해탈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예를 들어 부모가 불행한 가족 구성원, 예를 들어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살은 모든 존재가 그렇게 해야만 영적 성취를 달성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자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됨의 실현에서 모든 존재는 보살의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정의에 대한 일부 세속적인 견해와 보살 서원에 대한 불교적인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회 정의 운동에서, 우리가 여성의 참정권과 미투 운동 또는 인종차별과 흑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듯이,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사회 집단을 위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 서원은 자신의 개인적 또는 특정한 고통을 말하기 전에 다른 모든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 운동은 보살이 모든 존재를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해탈시키겠다고 서원하는 동안 간과되고 무시되고 남용된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 정의 운동이 보살 서원의 대승불교 비전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같은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 단계 이상의 관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모순을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두 가지 – 현대(그리고 포스트모던)의 사회정의 참여(social justice engagement)와 보살서원의 사회참여(대승불교의 사회참여; mahayana unfolding) – 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지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딥 리스닝, 딥 리스닝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 정의 운동의 일부 형태는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확고한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강경한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 거의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대부분의 대승불교는 사회적, 윤리적 행동의 기초로서 심오한 일체감이나 비이중성에 호소합니다. 이 무한한 연민의 실현 속에서 자신과 타인, 친구와 적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범주를 넘어 깊은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의 영역, 우주적 불교 공동체, 또는 우주적 상하에서 교감을 실현하는 것처럼, 그것은 모든 사람, 정말 모든 존재가 속한 세계입니다.

그레이스 송 목사의 수필

최근 읽은 수필 『소속 공간을 만드는 방법으로서의 깊이 듣는 법(Deep listening is the kind of listening that can help relieve the suffering of another person)』이라는 원불교의 그레이스 송 교무의 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주는 교훈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타인과 단절된 것 같은 삶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전염병이 발생할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여전히 공유된 인간성의 쇠퇴를 감지할 수 있다. 두려움은 고립감과 단절감을 강화하는 우리 대 테마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소속감을 느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필요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며, 둘 다 없을 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어 "딥 리스닝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류의 리스닝"이라는 작고 위대한 베트남의 마서 티흐낫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말로 계속합니다.

딥 리스닝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가장 진정한 자아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말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듣는 것이 진정한 연민이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필요성을 풀어줄 때,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듣기 시작하고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이는 완전한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는 생각에 잠길 수도

없고 내면의 담론에 잠길 수도 없고, 여전히 경청할 수도 없다. 적극적인 청취자는 스스로에게 "내가 여기 있나요?"라고 묻는다. 내가 안에서 조용히 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나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우리가 간과되고, 무시당하고, 학대받았을 때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모든 존재는 고통의 대상이며, 대승불교의 비전에서 모든 존재는 큰 연민의 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발레리 브라운의 신청서

그레이스 송의 딥 리스닝에 관한 훌륭한 에세이를 읽는 것 외에도, 나는 불교 교사이자 인종 정의 옹호자인 발레리 브라운의 도움이 되는 에세이를 발견했습니다.

1995년에, 나는 선의 거장인 Thich Nhat Hanh의 공개 강연에 참석했다. 강연은 [뉴욕시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였습니다. 제 동생의 아파트에서 길을 따라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그냥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Thich Nhat Hanh가 말한 모든 것은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반대였습니다. 나는 바로 이런 A형이었고, 공격적이고, 벙커 정신성이며, 못처럼 단단한 사람이었고, 엄청난 내부화된 억압과 내부화된 인종차별로부터 막 달려왔다. 그리고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강연을 떠났다. 저 사람! 저 남자 분은 누구니? 그날은 뭔가를 건드렸고, 내게 불꽃이 튀었어. 그리고 저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습하기 시작했고,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직장에서 실제로 이것을 연습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검은 피부에 레게머리를 한 흑인 여성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격리된 지역 출신의 백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저와 반대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 호흡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숨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닥에 발이 닿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부드럽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온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차린 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신에, 이것이 로비스트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것에 진정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비록 내가 그 사람이 내 감정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믿어도 말이야. 나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다: 더 말해줘. 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진심이 드러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의 역동성은 적대적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이 되었다. 그것은 대인관계에 있는 마음챙김의 한 형태였다. 그것은 평화, 평화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레리 브라운에게, 그녀가 처음 마주한 보수적인 백인 남성은 백인 인종차별, 백인 가부장제의 손에 의한 오랜 억압의 역사를 상징하는 "적"을 대표했다. 그러나, Thich Nhat Hanh의 가르침에 따라, 그녀는 마음챙김, 개방성, 부드럽게 이 남자에게 깊은 경청의 자세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보살처럼 자신의 선입견을 제쳐두고 그를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그녀는 더 큰 이해의 가능성을 열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덜 방어적일 수도 있고, 그는 그녀에게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스루치 마유미와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비록 나의 주요 연구는 선종과 정토 불교를 포함한 일본 고전 불교 분야이지만, 나는 불교와 심리 치료 분야에서도 일한다. 2003년, 저는 교토 대학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의 객원 교수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교토 대학이 일본 임상 심리학회 연례 회의의 사회를 맡고 있었는데, 대학원생들이 발표한 논문 패널에 응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루치 마유미 씨가 제시한 제가 들은 사례 중 하나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유전병에 대한 DNA 검사가 수반되는 유전 상담 사례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가족 중 유방암 병력이 있다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검사할 수 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에 걸리기 전에 유방을 제거하거나 양쪽 유방절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는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아직 이 병을 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유방을 제거한 경우이다. 따라서 DNA 검사를 받기로 한 결정 자체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수리치 양은 중학교에서 상담교사로 배치되었는데, 이것은 DNA 검사를 받기 전에 유전 상담을 받으러 온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학생은 자신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지원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음악 선생님들이 그녀가 클래식 음악에 강한 관심과 약간의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도록 격려를 받았고, 그녀는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발전했고, 그녀의 잠재력을 인식한 그녀의 선생님은 그녀를 그 지역에서 최고의 바이올린 선생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공연할 때마다 콘서트를 듣기 위해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 학생은 24시간 내내 자신을 몰입시키며 거장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을 자유롭게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계에 성인 발병 난청의 병력이 있어서, 그녀는 이 상태에 대한 DNA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결과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그녀는 계속해서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결과를 몇 주 동안 기다렸고, 의사는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귀머거리가 될 가능성이 100%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상담원으로 배정된 대학원생과 첫 사후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도 "검사 결과를 받고 나는 죽었다"고 말할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죽은 것 같았다"가 아니라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완전히 말이 됩니다.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 위해 살고, 숨쉬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인생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이었고, 이제 이 꿈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그녀 자신이 될 자유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는 궁극적인 파괴, 즉 자아의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죽었다"고 말하자 대학원생 상담교사 수루치 씨는 할 말을 잃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후, 이 중학생은 매주 상담을 받으러 왔지만, 그녀와 그녀의 상담사는 둘 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몇 달 후, 그 학생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귀머거리가 된 할머니와 고모의 무덤을 방문할 것입니다."

다음 약속을 위해 불교 묘지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처음 할머니와 증조모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저는 슬프고 속상했고, 심지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멋진 선물을 주셨죠?"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외조상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환각과 같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고통을 정말로 듣는 더 심오한 의미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을 위한 상담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에 직면했을까. 그녀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연민, 그들에 대한 그녀의 것,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들의 것과 깊은 연관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상담사에게 처음으로 그녀가 그들과 가지고 있던 깊은 삶의 연결(Jpn. inochi no kizuna)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녀가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그녀의 모계 조상들이 그녀에게 그녀의 삶을 나아갈 용기를 주었고, 그녀가 미쳐가면서 그녀에게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이 상담사는 일본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교토 대학의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학업 능력이 뛰어났으며 심리 치료와 상담의 이용 가능한 이론과 관행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이 젊은 여성의 얼굴에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침묵을 지키면서도, 이 때문에 둘 다 불편했을 텐데도 깊이 귀를 기울이면서도 그 중학생과 계속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사는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학생이 하는 말이 무엇이든 깊이 귀를 기울이는 그녀의 태도에서, 비록 그 말을 찾을 수는 없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대학원생은 상담실의 공간을 그녀의 학문적 지식으로 채우면서 일을 덮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심리 치료의 어떤 정의된 틀을 초월하여 단순히 그녀 자신, 제한된 인간,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의뢰인 앞에 앉아 그녀 자신은 중학생 시절의 그녀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고, 아마도 그녀의 불교적 배경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녀의 진정한, 상상할 수 없는 자아를 드러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경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느끼는 한, 그녀는 음악의 소리에 대한 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가 그녀의 어머니 조상들의 무성의한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귀머거리라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만남의 결정적인 순간에 상담자와 중학생은 그들의 심오한 단절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주 자체의 상상할 수 없는 조명에 대해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잊어버리고, 서로에게 완전히 존재하게 되었고,

어린 소녀는 일종의 죽음을 지나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은 수준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의 스승인 도겐은 "불도를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초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상담자와 어린 학생 모두를 시각과 소리를 넘어 삶과 죽음을 넘어, 현실의 단일성의 깊은 흐름 속에서 자아의 가장 깊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후자의 재탄생으로 이끈 "딥 리스닝, 딥 리스닝"의 수준이었습니다.

결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그 때 우리는 파괴의 어두운 세력에 맞서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 정의의 깊은 곳에 있는 대승불교의 비전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우리 자신의 어둠, 우리 자신의 맹목의 깊은 곳을 파고들 때만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치유하는 하나의 깊은 흐름을 깨달을 때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한 견해가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인 길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바로 간디와 공통점을 찾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함께 찾은 공통점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한한 마음, 위대한 연민과 우주 치유의 심장, 모든 종교, 정의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관대함을 실현하려는 열망이 있다; 흑인, 갈색, 적색, 백인, 아시아인; 여성, 남성, 모든 성별; 모든 문화와 삶의 계층의 사람들;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다.고대부터 무한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인 비인간적인, 심지어 태양과 별과 달까지도. 앞서 인용한 테네시 윌리엄스의 말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자아 중심적인] 불투명한 층들을 태워버리고 서로의 벗은 마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격렬하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앞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은 것에 대해 무한한 친절과 관대함으로 저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대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쿠니히코 테라사와
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마크 유노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회장

하쿠가 무라야마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장

연사 소개

(좌장) 테라사와 쿠니히코 (미국 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패널) 마크 유노 (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회장, 미국 오레곤대학교 교수)
하쿠가 무라야마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장)

*안내 :
1) 본 세션에서 무라야마 회장의 발언은 테라사와 좌장이 순차통역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 향후 한국 패널을 제외한 모든 패널들의 이름 표기는 서양식 표기법을 따릅니다. (이름 + 성)

쿠니히코: 일단 먼저 강렬한 기조 연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불교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사회 정리를 다루는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사회정의 운동 방식과 비교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아예 별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속적인 사회정의 운동과 대승불교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정의 운동과 함께 보완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예시 또 들려주셨습니다. 바이올린니스트와 마유미간의 카운슬링 알려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 불교 패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겠습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잠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는 와트버그 대학교 종교학 부교수입니다. 저는 종교관 그리고 불교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라야마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라야마(쿠니히코 순차통역): 무라야미 회장님께서는 현재 세계불교도 청년 우위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많은 불교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불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마크 유노 회장님은요 종교 연합 활동을 불교 신자로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유노: 저는 미국 불교기독교학회 회장으로서 불교와 기독교의 많은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저는 불교 기독교의 대화에 있어서 많은 시간 동안 참여해 왔고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쿠니히코: 유노 회장님의 강연을 보면 대승불교의 개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공의 개념 하나됨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또 훌륭한 예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는 말씀 깊은 경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토대학의 마라미상의 깊은 경청을 통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경청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다른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이런 사례처럼 깊은 경청을 통해서 타인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 사회의 정의의 움직임, 사회의 정의의 움직임이 양극성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분법적인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나 무엇이 맞고 틀리고를 구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회정의 운동이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너무 서로를 악으로 생각하고 정의의 이름을 빌려서 많은 이런 이분법적인 분열을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푸틴도 자신만의 그런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자신이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측이든 자신이 정의를 실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정의의 개념 정의와 불의라는 구별되는 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런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런 독재자들 푸틴 같은 그런 독재 정치 시진핑이나 그런 탄압적인 지도자들 세속적인 사회정의운동이 이제 소수에 탄압받는 사람들을 대표해야 하는데, 탄압 받는 영혼들이 악인 경우 그러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탄압받는 사람들도 또 이제 탄압하는 사람까지 구원하는 게 불교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다룰 수 있을까요? 혹시 좀 구체적인 예시나 또 제안 사항이 있으실까요?

유노: 쿠니히코 교수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사회의 정의가 치유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겁니다. 저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더 작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현재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관련 리포트도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촉구가 있었다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대한 리포트도 있었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을 대상으로 컴패션을 보여주었다는 리포트도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승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치유도 중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장기적인 치유가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큰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진정한 장기적인 항구적인 사회 정의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리더십이 중요해집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도자들 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도가 독립을 원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간디의 비폭력 운동을 생각해 봅니다. 이때 어떤 치유가 있었죠. 굉장히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모두가 여기 함께 했었습니다. 인도 국민들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국 측도 있었습니다. 간디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큰 차원과 작은 차원입니다. 두 가지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훌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친절은 결국 남습니다. 작은 행동도 중요합니다.

무라야마(쿠니히코 순차통역): 무라야마 회장님의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진 책임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책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복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는다. 우리 화를 화로 갚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깊은 인상을 남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고유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비심, 이것이 사고연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들의 프로그램이고,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유한 불교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구나. 대비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구나. 우리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우리는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불교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라야마 회장님.

테라사와: 무라야마 회장님이 젊은 층들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젊은 불교도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젊은 세대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어떤 대응방식을 보여주나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나요? 젊은 층을 생각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일본과 전 세계적인 맥락 모두가 궁금합니다.

무라야마(쿠니히코 순차통역): 각각에 고립되어 있는 개인과 공통체의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로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문제를 다루고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입니다. 코로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다시 접근하고자 합니다.

고립된 이런 팬데믹의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의 신자들과 스리랑카 신자들, 미얀마 신자들과 함께 네트워크 국

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간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적인 불교 컨퍼런스를 두 달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거울이 돼서 서로를 성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국제 네트워크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 의미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라사와: 마크 회장님, 불교와 기독교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계시며, 교수님으로서 또한 신자의 입장에서 팬데믹 기간에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유노: 제가 하는 작업에 있어서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일단 교수로 활동하고 두 번째는 불교 신자로서 활동을 하고 세 번째는 이건 좀 더 확대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봅니다.

교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교사라는 입장에서 제가 모든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가지 학생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젠더를 가진 학생들 다양한 인종을 가진 학생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대학교의 이 교실 환경을 보면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자리를 만들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경청할 수 있는 또 서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깊은 경청을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의 아이디어 관심사 또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를 제가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를 통해서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맥락에서 보면 신불교가 미국에 이제 일본 이민자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많은 사업과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일본의 미국인들과 활동을 하는데 또 많은 집단들과 불교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꼭 일본계 미국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뿐만이 아닙니다. 불교를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 기독교 학회 회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리더십에 있어서 좀 더 다양성을 갖춰야 된다. 이 사직에도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더 많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리더십을 막고 또 젠더도 포용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배경에 있는 사람을 모을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하도록 장려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환영받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고 전하는지 쉽지 않으면 그들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차원이 있고 또 개인적인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더 영향을 주기가 쉽습니다. 좀 더 빠르게 자원을 전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깊게 발전을 원합니다. 근데 구조적인 변화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차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테라사와: 네 교수님의 말씀이 무척 좋은 내용을 공유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정의에서 개인적인 변화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개별적인 변화를 보일 때 우리가 각자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변형 또는 깨달음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적 관계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기독교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도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어떤가요? 개인의 변화에 불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적 지혜가 구조적 변화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불교적 지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불교가 어떻게 구조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유노: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도 있고 다른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그 관점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성년이 되기까지 자라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결국 사망을 한다고 하죠. 결국에 사람은 죽는 거죠.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서 유대교를 동시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서 이슬람교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두 개를 다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아시아 종교를 봅시다. 아시아 종교는 역사가 좀 다릅니다. 많은 중국 분들 도교도 믿고, 유교도 믿습니다. 많은 일본인들 신토도 믿고, 불교도 믿습니다. 아시아의 종교는 뭐랄까 조금 다릅니다. 신토 스타일에 웨딩에 참석하고 불교 스타일에 장례식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아는 아침과 저녁 다른 종교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시아에서 종교들이 많이

거쳐 갔습니다. 아시아의 불교의 존재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들과 공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 차원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기관적인 차원보다는 제도적인 차원보다는 로컬 차원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시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역의 부처가 의학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다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려갑니다. 그 부처님이 도와줄 겁니다. 역사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역사가 다릅니다. 전 세계가 근대화되면서 서양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기반을 요구하는 해결책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로부터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유기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풀뿌리 차원의 대응 방법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주민의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해결책을 커뮤니티 그 자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교도 불교도 배워야 합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컬 방식을 봐야 돼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로컬 차원의 대응책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합니다. 빈곤과도 연관이 있고, 식량안보와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 차원의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테라사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로컬 차원에서 지역의 맥락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무라야마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무라야마(쿠니히코 순차통역):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지혜를 모으는가? 어떻게 불교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불교의 지혜를 사회에 적용시키고, 무라야마 회장님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불교적인 지혜가 사회적인 불교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으로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나요?

유노: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아시아의 불교학과 학과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또 새롭게 부상한 19세기. 20세기 21세기 새롭게 부상한 불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불교와 또 일본의 이 입성교성회가 새로운 형태의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회가 이미 존재하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은 다음에 나온 불교는 전통적인 형태의 불교와 다릅니다. 제국주의적인 그런 정부와 연관이 되어 있던 불교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와 다른 비슷한 불교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입정교 성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처럼 상향식의 활동을 하고 또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원불교에 동료분들을 통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테라사와: 네 맞습니다. 원불교와 입정교성회가 가장 활동적으로 종교 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회장님, 이제 선 불자로서 도개 선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물려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학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선불교 신자로서 종교관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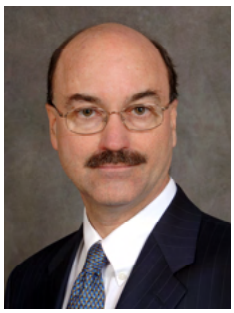
무라야마(쿠니히코 순차통역): 조직에서 보시면,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불교계 내의 대화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교간 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 간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크 유노 교수님의 연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는 것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무라야마 회장님의 교훈도 새겨봅시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연설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1. 평화 대화

"인종주의 종식과 평화 구축"

- 유엔세계평화의날 공식 주제 -



레오 르페뷔르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캐롤린 존스 메딘
조지아대학교 교수

줄리우스-케이 카토
킹스칼리지-웨스턴대학교 부교수

쿠니히코 테라사와
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연사 소개

(좌장) 레오 르페뷔르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패널) 캐롤린 존스 메딘 (미국 조지아대학교 교수)
줄리우스-케이 카토 (캐나다 웨스턴대학교-킹스칼리지 부교수)
쿠니히코 테라사와 (미국 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안내 :
1) 본 세션은 패널들이 제출한 원고로 대체합니다. (에세이 : 캐롤린 존스 메딘, 줄리우스-케이 카토, 쿠니히코 테라사와)
2) 한국 패널을 제외한 모든 패널들의 이름 표기는 서양식 표기법을 따릅니다. (이름 + 성)

(에세이 #01) 캐롤린 존스 메딘

1903년, W.E.B.의 The Souls of Black Polk에서. 뒤부아는 "20세기의 문제는 색선의 문제"라고 썼다. 미국의 극심한 인종 폭력과 전 세계의 식민지 착취 기간 동안 작성된 이 성명은 1903년 듀보이스가 알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선견지명이 있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문제"는 21세기에 접어들었다.

여기서, 나는 듀보이스의 세계 정치에서 인종차별의 영향을 어떻게 지적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는 코로나가 특히 이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종차별을 어떻게 강조했는지 제안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인종차별적 불의를 영속시키는 두 가지 힘, 즉 근본주의와 강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 가지 현대적인 반응-인종차별과 그 영향에 대항하고자 하는 사랑 윤리의 귀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E. Tendayi Achiume는 유엔을 위한 COVID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종적 불평등은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도전이다. 체계적인 인종 차별은 초국가적인 법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그러한 불평등에 도전하기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한함으로써 인종적 불평등을 지지한다.*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종차별은 체계적인 인코딩에서 나오는 사회적 편견을 포함하여 유색인종들이 매일 마주치는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공격을 생성하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사회화된 행동은 체계적이고 이념적인 인종차별을 현실화하고 강화하는 친숙한 관행을 포함하며, 이는 '타인'의 구별을 정당화하고 제정하며, 이방인은 소속을 굳히고 아웃그룹을 강화한다. Teun A. van Dijk는 인종차별은 사회적 기억에 저장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우리는 지젝이 "마스터 시그널링"이라고 부르는 것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지젝은 나치에게 문제는 단순히 "유대인" 개 호루라기라고 주장하며 복잡한 질문에 "답변"하고, 명료성을 부여함으로써 불안을 가라앉히고, 지배와 폭력을 허용한다.

따라서 인종은 국제 관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세계 정치의 중심 조직적 특징이다. 세계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지배적인 프레임은 "인종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지적 기반"에 기초하고 있으며, 백인을 특권으로 삼는 서구 중심의 담론에 뿌리를 두고 있어, 서구 구조의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따라서 Jayant Bandopadhyaya는 색선이 분열을 나타내며, 인종차별은 "통과할 수 없는 만"을 만들기 때문에 "국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생존성에 전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분열은 정치와 다른 제도뿐만 아니라 이중 의식의 건설에서 두 보아가 인정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에 하나이며, 21세기에도 "백인 열강의 인종차별적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냉소적으로 배치된 인종차별주의는 유용한 정치적 도구이다. 미국 정치에서 1981년 공화당의 전략가 리 애트워터는 악명 높은 "남부 전략"을 제시한 유명한 인터뷰를 했다. 앳워터는 공화당이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들리지 않으면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1954년에 [n]자로 시작합니다. 1968년까지, 당신은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강제 버스 타기, 주 정부의 권리, 그리고 그 모든 것들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당신은 너무 추상적이 된다.*

따라서 인종차별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적응하고 있다."

이 암호화된 언어는 페렐 길로리가 "개 휘파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것은, 승화적으로, 인종적 불만을 유지한다. 개 호루라기의 매력은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도 인종차별을 숨길 수 있고" 그것을 상식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목표는 대다수가 자격이 없는 소수 집단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고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2045년 백인이 소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 이후, 개 휘파람은 또한 그들이 대체될 "소수"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문화적,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자극한다. 따라서 "기타"의 수가 증가하면 "실존적 위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된 인종은 이민 논쟁에서 등장한다. "개방된 국경"은 개 호루라기가 전 세계적으로 저항하는 이민자들의 삶을 포괄하는 남부 전략을 확장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2021년에 40% 증가하여 개최국들을 긴장시켰다. 퓨 리서치 센터는 많은 나라들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국경을 넘는 것이 더 적거나 전혀 허용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보고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주에 있어 흑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티 이민자들은 이것의 상징이다. 흑인 이민자들은 더 높은 비율로 구금되고 추방되며 독방에 수감될 가능성이 6배 더 높다.

코로나는 인종, 민족, 계층의 불평등을 부각시켰고 이민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 집단이 더 높은 감염률과 사망률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1944년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개인의 미국 입국을 중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공중보건서비스법 42조를 시행하면서 코로나 공포는 미국 국경의 인종차별을 부채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42번 타이틀을 이어왔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이제 타이틀 42에 따른 어떠한 예외도 거부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를 묘사하는 개 휘파람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중국 바이러스"로, 마이크 폼페이오에 의해 "우한 바이러스"로 불렸을 때 인종 폭력을 촉발시켰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괴롭힘과 신체적 공격의 세계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뉴욕의 한 흑인 남성이 67세의 아시아계 여성을 125번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그녀를 "아시아의 년"이라고 부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이 개 호루라기 언어는 가난, 인종, 그리고 다른 것들이 문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라고 주장했던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의 인종차별의 기초를 다시 활성화시킨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과학적 인종주의는, 가난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소위 "하위"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다른 어떤 결함이 있거나, 타락하거나, 열등한 계층의 "부적합"이라는 것은 문명인들이 "부적합한 사람들이 그들의 종족을 영속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세기 프로이센 예술가 루돌프 크로나우는 "진보의 열쇠는 선진 문화와 문명을 가로막는 '하층 인종'의 전멸이었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카 인디언, 폴리네시아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다윈의 경쟁에서 멸종할 운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유럽의 팽창은 그들을 멸종으로 몰고 가는 것

이 정당화되었다. 사회적 다윈주의에서 가스실과 국경을 가로지르는 색상 선은 직접적이고 명확하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어떤 감각도 훼손한다. Mary Midgley는 사회적 다윈주의가 "서구의 비공식적인 종교"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요소가 이 "종교"에 기여한다: 근본주의와 그것을 시행하는 강한 사람의 부상.

지미 카터 대통령은 "강성, 지배, 배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요약하면서 우리의 멸종 위기 가치(2005)에서 근본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근본주의 지도부는 "권력자에 대한 특별한 특혜, 사회 정의를 저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한다; 그것은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폄하한다. 순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시도 그것은 협상과 다른 평화적인 노력을 약화의 신호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다."

2005년 카터는 미국에서 "공화당의 우익과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을 병합하는 데" 노력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미국의 초강대국을 "진실, 정의, 평화, 자유, 겸손, 인권, 관대함 및 기타 도덕적 가치의 유지에 대한 입증 가능한 헌신"에서 단순한 권력 중개로 이동시킨다. 카터는 소수의 근본주의자들이 신보수주의 정치를 통해 불균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다. 이는 다양성, 포용성, 공감, 그리고…흑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근본주의적 리더십은 기디언 라흐만과 루스 벤 기아트가 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인 강한 남성들에 의해 남성화되고 가부장적이다. (그리고, 나는 조르지아 멜로니와 같은 가부장적 코드를 가진 여성들을 덧붙인다.) 전형적으로, 일부 강한 남성들이 제약에 의해 선출되고 영향을 받더라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그들의 "나 혼자서 고칠 수 있다"는 입장은 국가와 지도자의 구별을 약화시킨다. 그들은 법치주의를 경멸하는 동시에 법원을 통제하고 싶어하는데, 그 통제가 "선택적 민주주의 그 자체"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롱맨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대표하고 있으며 엘리트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면서 "진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한다. 그들은 공포와 민족주의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를 주재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벽을 쌓아라" 또는 "브렉시트를 끝내라"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를 제안하는 마스터 신호기를 배치할 수 있다. 그들은 특히 그 힘이 사람들과 "그림자 같은" 외부 적들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에 대해 칭찬받기를 원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삶을 위한 권력을 원한다는 것이다.

스트롱맨 리더들은 미디어, 특히 소셜 미디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연결은 강자가 어떠한 윤리와 책임으로부터도 비우고 "폭력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소셜 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은 또한 중국의 경우 국가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더 집중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인 가치에 고개를 끄덕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남성 리더의 남성성은 그들을 약탈적으로 만들고, 여성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이것을 분명히 한다. 여성의 해방은 가부장적 통치에 대한 위협이며, 강한 남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그들의 자리에 놓여야" 한다.

다른 어떤 것들과 마찬가지로 강자들의 업적에서 인종 수치는 국가에 위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강화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강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그 "위협"을 억제하고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다른"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종은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워드 서먼이 말했듯이, "폭력은 현대 세계에서 권력의 패턴이며, 폭력은 그 나름의 에티켓과 의식, 그리고 그 나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은 반인종주의적 작품에 한계가 되는 이기심을 낳는다. Ibram Kendi가 처음부터 인 스탬프에서 썼듯이(In Stamped from the Beginning):

> *역사는 분명하다. 희생, 고양, 설득, 교육은 근절되지 않았고, 근절되지 않으며, 인종차별 정책은 고사하고 인종차별적 사상을 근절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결코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자기 희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사리사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종차별을 폐지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인종차별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되는 한 결코 그렇게 하도록 설득되거나 교육받지 못할 것이다. (스탬프, 508-509)*

권력과 인종차별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제가 보는 한가지는 하워드 서먼의 간디와의 만남을 통해 미국 정치에 들어온 문화적, 종교적 형태의 회복입니다. 그는 간디를 마틴 루터 킹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에서 벨 훅이 다시 언급한 것은 사랑 윤리입니다. 사랑 윤리는 우리를 "마음의 부재"를 해결하는 자아의 실천으로 불러들인다. 그것은 "내성의 소멸"과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이성적 윤리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진다.

기독교 불교 신자인 훅스에게 있어서, 사랑의 실천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Thich Nhat Hanh가 말했듯이, 인종차별

적인 분리를 다루면서, "지역간"이라는 인식을 열 수 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의 모든 차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무지에서 책임으로 깨어날 것을 요구한다. "사랑, 헌신, 신뢰, 책임, 존중, 지식" 실천은 사랑이 "기술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지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백인 우월주의, 시스젠더, 가부장적 제도의 마스터 기호에 도전할 수 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며 변화를 위한 길을 만들고 사랑하는 친절을 개발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려는 연민을 보살처럼.w는 말한다, 고통으로부터.

사랑의 윤리는 우리가 사티아그라하, 영혼의 힘, 비폭력의 보편적인 힘을 사용하여 사랑을 방출할 때, "인간의 정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게 지속적인 특성"을 이용한다. 사랑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움직이며 파괴적인 힘에 도전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사랑의 윤리, 각성과 구원의 일은 힘들지만, 필요하고, 진행 중이어야 한다. 불교의 스승 길 프론즈달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인생은 고통이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는 한 번에 한 방울씩 사랑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 *우리 삶의 모든 측면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어려운 작업일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주치는 각각의 사랑의 표현을 감상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손가락을 딱 부러뜨리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유익하다. 수련의 한 방울 한 방울이 의미심장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로 물주전자를 채운다"는 것이다.*

(에세이 #02) 줄리우스-케이 카토

- 주제 : "인종차별 종식과 평화 구축: 캐나다 거주 학교 시스템의 공포 성찰"

- 요약(Summary)

"인종차별"은 인류 역사를 특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인간이 어떤 이들에게 특권을 주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해온 수단 중 하나를 말한다. 성별, 계급, 종교 등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특권을 주고 억압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따라서, "인종"의 범주는 이러한 다른 요소들과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종 "교차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논문과 발표에서 나는 인간 세계관 발전의 더 넓은 틀 안에서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종교가 해온 역할에 대한 연관성을 성찰해보려고 한다. 오늘날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의 특권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이 기본적으로 비판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화적 민족중심적 세계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또한 종교가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종교는 종종 어떤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비판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화적 자기중심적 세계관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현대, 상호 연결되고 세계화된 세계에서 특히 시급하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세계 중심적이고 우주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이동할 때 일어날 것이다. 반면에, 종교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신의 왕국의 비전을 향해 어떻게 민족 중심적 세계관을 넘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들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나는 그것들을 수많은 원주민 아이들이 억압받고 심지어 그 결과로 사망한 캐나다 거주 학교 시스템의 슬프고 끔찍한 역사의 맥락에서 배치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한 민족에게 특권을 주고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신화 중심적 세계관의 산물이었다.

저는 그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오늘날 우리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교훈을 끌어낼 것입니다.

(에세이 본편)

파트 I

역사의 많은 공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캐나다 거주 학교 시스템)

[1]-인간 문명의 양면성. 인간의 문명은 깊은 의미에서 선천적으로 야만적이다. 인간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슬프게도 인간이 어디에 있든 의견 불일치, 상호 혐오, 심지어 증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끔찍한 폭력 행위를 초래한다. 그러나 물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인간도 자기 안에 연민과 친절의 깊은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속담에 있듯이,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우리가 더 많이 먹이는 것이 승리한다."

[2]-인간의 발전 패턴. 이 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세계관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과정이다(이것은 전체 문명에도 적용된다). 사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성장이나 발달의 패턴을 겪는다. 그것은 인생의 시작점에서 이기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단계인 (1단계에서)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인간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2) 이기심을 초월하여 자신의 '부족'이나 '내부자 집단'도 가치 있게 포함하는 단계인 민족중심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인종차별주의는 인간 발전의 "전체화된" 자기중심적 단계에서 성장하는 태도이다. 민족 중심적 단계는 인종, 종교, 민족, 지리적 기원 등과 같은 한 민족 집단의 가장 두드러진 지점을 무비판적으로 선호하고 미화하는 태도로 특징지어진다.

[3]-민족 중심성을 넘어서. 상호 연결되고 다양한 오늘날, 우리의 세계에서, 겪어야 할 더 많은 필요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민족 중심적인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자신의 "부족"(민족 중심적)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에서, 사람들은 더욱 세계 중심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타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도 최소한 정의롭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우정과 보살핌도 받아야 한다. 가장 높은 단계는 더 (4)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과 무생물(우리의 전체 우주까지도!)이 우리의 관심과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단계인 우주중심이 될 것이다.

[4]-역사상 지배적인 민족중심주의. 그러나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과 문명은 주로 민족 중심적이었다.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에 기초한 "부족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다. `나의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낫다.' `나의 지파는 진리가 높다.' 또는 `나의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우월하다.' 하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세계 인구에게 사실이다. 비판적이지 않은 민족중심성의 한 가지 문제적인 측면은 우리가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세계관에서 비인간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들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하게 한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민족 중심적 세계관은 부족의 기본 원칙(일명 이야기, 가르침, 교리)에 대한 "신화적 문자적 이해"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은 백인들을 전 세계에 문명을 가져다주기 위해 임명했다; 히틀러는 독일 국가의 구세주이다; 미국은 신의 새로운 선택된 국가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특정 단계(특히 2단계: 민족중심-부족)에 있을 때, 이 단계의 세계관이 무엇을 보게 하는지만 알 수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부족 중심의 세계관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관이 틀리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보통 여러분이 지금 수영하고 있는 (옛날과 같은) 연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무대의 세계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저단계 세계관만 평가할 수 있다.

[4]- 내 "부족". 나의 "부족"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나의 가족과 대가족, 나의 일족, 나의 마을. 여기서 우리의 주제에 대해 특히 중요한 "부족"은 또한 다음을 가리킨다: 나의 인종, 나의 문화, 나의 사회 및 경제 계층, 나의 성별, 나의 종교 등. 자신의 "부족"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다른 집단을 무시하거나, 더 나쁘게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 북미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인종은 억압의 범주뿐만 아니라 특권의 범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사실, 백인이 되는 것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백인이 되지 않는 것은 차별을 받고 억압받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비판적 인종 이론, 탈식민지주의 이론, 해방주의 이론, 그리고 (특히 내 종교 연구 분야에서) 세계관의 발달 이론을 특정 종교적 정신성에 적용하는 종교의 통합 이론과 같은 학문을 연구하는 현재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5]-"제국의 유전자". 게다가 인간의 문명은 선천적으로 제국주의적이다. 제국주의는 문명의 중심에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에 대한 욕망이다. 특정 문명이 충분한 힘을 얻게 되면, 보통 그 힘을 이용하여 다른 문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것은 역사상 한 인간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 이동할 때 종종 일어났다.

[6]-서양제국주의. 세계사의 어느 시점에서, 서구 문명은 과학, 기술, 그리고 더 나은 교통수단, 전쟁을 치를 더 강력한 수단, 그리고 다른 지적, 물질적 자원의 개발을 초래한 상품의 발전을 통해 엄청난 힘을 얻었다. 이 힘은 특정 서구 열강들이 서구 자체 또는 서구를 넘어 "약한" 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촉매제였다. 서양인들이 다른 비서구적 집단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의 서구 문명이 정복된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자만심을 발달시켰다.

나는 우리의 특정한 주제 때문에 우연히 여기서의 틀을 서구 문명에 적용하지만 문명의 야만, 폭력, 제국주의, 오만은 비단 '서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들은 조건이 맞을 때나 이 특정한 "늑대가 먹이를 줄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들이다. 나는 일본계 혼혈이고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았다. 따라서 나는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비서방 제국주의 강국인 일본이 최근 역사에서 악의적 제국주의의 명백한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노예제도의 역사를 살펴서 그것이 모든 문명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해져 온 보편적인 야만임을 알 수 있다.

[7]-식민지화의 과정. 이곳 북미에서는 서구인들이 유럽에서 도착해 이미 이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마주쳤을 때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한데 모여 원주민들에게 재앙이 될 '완벽한 폭풍'을 연출했다. 유럽인들은 그들의 문명을 그들과 함께 가져왔고 (그들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식민지화했다. 우리는 유럽 문명에 많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식민지화 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 즉 백인 인종, 서구 문명 및 그 종교(기독교)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낮게 보이는 민족 중심적 사고방식에 의해 특징지어졌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열등하다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제국주의적 욕망은 또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얻고, 새로운 땅을 그 땅의 원래 거주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모국에 이익이 되는 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열중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은 이러한 식민지 질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야만적인 폭력을 자주 이용했다.

나는 내 현재 위치인 북미를 언급하고 있다. 이 과정을 세계와 역사적 시대의 다른 배경에도 적용한다면 제국주의 열강들이 다른 민족과 땅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곳 북미에서는 침략자들이 유럽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었다.

[8]-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지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쪽) 북미가 독립 국가(캐나다, 미국)가 되었음에도, 지배 계급(대부분 유럽인의 백인 후손)은 캐나다의 정체성과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미묘한 (그러나 여전히 음흉한) 제국주의와 같은 민족 중심적 사고와 오만함을 물려받았다.여전히 초기 시대의 유럽 우월성 콤플렉스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기에 시작했다. 그것은 원주민, 흑인, 기타 유색인종(BIPOC), 여성, 대안적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 등 "기타"로 간주된 그룹에 대한 억압, 차별, 한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했다.

[9]-종교의 역할. 서양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기독교는 서양 문명의 종교가 되었다. 이 국가는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착수했을 때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서구 문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기독교는 예를 들어 신의 제재를 발동함으로써 그것의 확장을 정당화하거나 사람들을 기독교화함으로써 서구 문명을 서구화하는 국가의 대리인이 됨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좋든 나쁘든 서구 문명의 동맹이기도 했다.

주거학교의 경우 국가가 기독교 교회에 협조해 많은 학교의 운영을 맡겼다. 그들 중 상당한 수가 가톨릭 종교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경우 기독교 교회들은 토착민들에게 서구 문명의 중개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거주 학교 시스템의 임무는 캐나다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주민의 젊은 세대를 "동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외국, 유럽에 뿌리를 둔 문화를 채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문화적 대량학살의 한 형태로 더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위에서 언급한 서구 문명의 모든 어두운 요소들, 즉 민족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자만심, 그리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상당한 폭력과 함께 행해졌다. 여기서 언급된 "폭력"은 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어린이)의 많은 죽음을 초래한 부주의와 잔인함, 그리고 이러한 기관 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넓은 세계가 알지 못하게 하는 투명성과 책임의 부족으로 구성되었다. 그 마지막 요인은 특히 표시되지 않은 수십 개의 어린이 묘소의 발견과 특정 가톨릭 당국이 사과하고 거주 학교의 이 안타까운 역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공개하는 데 협력하는 추잡한 망설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추잡한 측면이다.

파트 2
우린 지금 뭐하지?

[10]-세계 중심으로의 전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서구 세계에서 특히 상당한 수의 사람들의 의식은 민족 중심적 세계관(위의 2단계)에서 결정적으로 더 세계 중심적인 세계관(3단계)으로 전환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이고 특권적인 그룹들.) 그 때문에, 우리는 하위 단계와 그에 수반되는 세계관을 더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3의 주석 참조). 이 경우에, 우리의 비판적 평가의 대상은 식민지 개척자들이 살고 행동했던 초기의 지배적인 민족 중심적 단계이며, 그 우월성의 콤플렉스와 오만함,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지적인 욕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성취하는 폭력적이고 심지어 야만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사회 계층, 문화,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정의, 존경, 명예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된 보다 세계 중심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혐오스럽고 충격을 받는다.

[11]-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라. 의식과 세계관의 발전적인 성장에 의해 초래된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위에서 지적된 것에 기초한) 적절한 반응은 틀림없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과거 식민지 개척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역사적 행위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라. 이러한 식민지 개척자들은 자신의 조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특히 고통스럽다. 특히 원주민과 다른 억압받는 집단(BIPOC 등)에게 행해진 회피, 탈출, 부정, 역사적 부당함의 방어는 도움이 되지 않고 파괴적이다. 그들은 단지 필요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12]-발달이론의 중요성.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세계관)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른 발달 단계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위에서 제시된 것은 매우 초보적인 모델이지만, 그것은 왜 과거에 특정한 행동이 행해졌는지에 대한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끔찍해 보이지만 우리의 최근 역사까지 널리 행해졌다. 이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다

른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게 되는 진정한 것은 우월감과 제국주의가 배어 있는 무비판적인 민족중심주의-부족적 사고방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세계의 많은 맥락에서, 이 국가를 구체화하고 잔인한 의제를 실행한 사람들은 서양인들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분명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는 그것이 실제로 인간 문명에 고유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1에서 분명히 언급했듯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양인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하고 역사의 불행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3]-BIPOC의 경험 가치. 평가 위에서 설명한 것(#11, #12)은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해당된다. 우리의 캐나다나 서양의 맥락에서 그것은 보통 인종과 성별(백인과 남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행한 역사의 결과가 여전히 불리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예: BIPOC)에게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선조들이 겪었던 역사적 트라우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차별, 소외, 폭력, 침략의 이러한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태도와 행위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 민족, 성별과 성적 지향, 사회 계층, 문화,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종종 BIPOC 사람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예: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14]-탈식민지화. 탈식민지화(즉, 세계의 백인, 유럽-북미 이야기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캐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배적인 백인과 가부장적 관점에서 말하는 캐나다의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캐나다에 있는 다른 비지배적 집단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심지어 특권을 주어야 한다. 특히 이런 경우에 주거학교 제도의 아픈 진실은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에 원한을 뿌릴 것이 아니라 과거를 정직하게 직시해야만 얻을 수 있는 화해의 과정을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이야기되어야 한다.

파트 III
종교/가톨릭과 개혁: 어디로?

종교와 신학의 학자로서 나는 이 주제에 깊이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 문명과 같은 종교는 또한 매우 모호하다: 그것은 세계에서 심오한 영감과 선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끔찍한 상황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선을 위한 힘으로 종교(그리고 가톨릭)에 대해 다른 곳에서 이야기/글을 썼지만 여기서 나는 종교의 어두운 면을 지적해야 한다. "종교"에 의해 나는 특히 그것의 가톨릭 제도적 형태를 언급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주 학교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그것의 내부자이고 그것의 찬란한 빛(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다!)뿐만 아니라 많은 어두운 그림자도 알고 있다. 다음과 같은 발언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전통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읽히기를 바란다.

[15]-가톨릭 개혁의 도전. 내가 위에서 서구 문명에 대해 말한 것은 무엇이든 내 고향 전통인 가톨릭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비타협적이고, 고칠 수 없고, 투명하지 않으며,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자만심, 제국주의, 자급자족에 의해 감염된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민족 중심 부족일 수도 있고, 자금도 그럴 수도 있다. 지도자든 구성원이든 가장 열렬한 신자들 중 많은 수가 여전히 가톨릭 신앙과 관련하여 2단계 무비판적 부족 중심 세계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같은 제도적 구조가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나는 종교 기관의 기능 장애를 정직하게 볼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종교성의 한 형태를 언급한다. 만약 이러한 기능 장애가 알려지면, 민족 중심적인 신자는 그것들을 지적하는 것을 주저하고 거부할 것이고 따라서 종교 기관의 기능 장애에 연루된 채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신자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세계 중심적이거나 우주 중심적인 의식을 발달시켰을 수도 있지만 종교적 신앙에 관해서는 안타깝게도 객관적이고 더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2단계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기독교의 많은 형태들이 민족 중심적인 부족들에게 일종의 "신성한 봉인"을 부여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많은 소위 열렬한 기독교인들이 민족 중심적인 부족들에서 더 세계 중심적인/우주 중심적인 것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것은 벅찬 일이다. 이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민족 중심적인 부족 형태의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형태의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하게 한다. 게다가,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가톨릭의 경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가톨릭 교회 자체의 높은 지위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비판적 이론(식민지 이후의 해방주의, 여성주의 렌즈 또는 비판적 인종 이론, 공동 의존 이론 등)을 교회의 주제에 적용하는 것은 신앙의 신성한 구조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한편, 오늘날의 서구 사회의 무게 중심은 일반적으로 세계 중심/우주 중심으로 이동했다.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민족 중심적인 부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겉보기에 화해할 수 없는 격차를 낳는다. 즉, 그들의 종교는 신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종교이며, 무신앙과 세속화의 바다에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라는 믿음을 장려한다. 이런 종류의 종교적 충동인 "신앙"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위된 요새처럼 방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많은 형태의 기독교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구식이고, 관련이 없으며, 오늘날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종교학자로서 그리고 아직도 스스로를 가톨릭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날에도 깊은 종교적, 심지어 깊은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동시에 종교적인 신앙에서도 세계 중심적/우주 중심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굳게 주장하지만, 나와 같은 목소리는 많은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려된다. 그들은 뿌리 깊은 민족 중심의 부족 형태인 종교/가톨릭을 거스르기 때문에 독불장군이고 심지어 불량배이다.

이 분야에서 나에게 가장 큰 과제는 여전히 이것이라는 것을 반복한다. 종교적 신앙의 영역에서도 종교 신자들이 민족 중심적 부족 단계에서 보다 높은 세계 중심적이고 우주 중심적인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를 들어 제임스 파울러의 '믿음의 무대'를 참조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쉬운 답은 없다. 사실, 민족 중심적인 부족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믿음에 적용되는 다른 발달 수준을 설명할 수조차 없다.

[16]-개혁을 위한 가톨릭 자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우리는 가톨릭이 이 역사를 더 잘 소유하고, 더 적절하게 사과하고, 더 단호하게 화해를 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1) 유엔 보편적 인권 선언과 같은 문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윤리 원칙. 거기에 있는 많은 원칙들은 실제로 재반향되고 가톨릭 교회의 바로 그 자체의 (2) [가톨릭] 사회 가르침(CST)에서 구체적으로 가톨릭의 관점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또한 (3) 해방 신학의 다른 기본 원칙들에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러나 제도적 가톨릭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진보적이고 외부 세계를 향한 전위적이지만 자신을 향한 개혁에 관해서는 보수적이고 느리다는 것이다.

(참고)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위의 모든 진술은 "모든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만 그렇다"는 철학자 켄 윌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것들은 단지 과거의 거주 학교 위치에서 현재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발견된 것과 같은 역사와 다른 공포를 이해하기 위한 나의 예비적이고 매우 불완전한 노력일 뿐이다. - 줄라우스-케이 카토, 박사, 런던, 온타리오.

(에세이 #03) 쿠니히코 테라사와

- 주제 : "더 깊은 이해 :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영상 시리즈 편집기 참고: 2020년 내내 "더 깊은 이해"는 진정한 다양성에 대한 ELCA의 약속을 포함할 것이다. 올해 광범위한 대중 시위를 경험한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홍콩과 미국의 시위는 소수 집단에 대한 정의와 인권의 강조,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도전 등이 유사하다.

스린 A.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캐피털 대학 트리니티 루터 신학교 학장 클라인한스 지난 학기 안식년에 방문하여 홍콩 항셍 대학에서 강의했다.

교수님. 이러한 반성은 자유와 자치를 위한 투쟁의 긴박한 상황에서 홍콩의 학생들과 다른 기독교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들의 자유는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중국 공산당 정부와 영국이 맺은 '일국양제'의 합의로 보장됐어야 했다. 그러나 홍콩의 자치권은 가장 최근에 6월 30일 베이징 정부의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수년간 침식되어 왔다.
홍콩의 학생들은 독립적인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 교양 교육을 받는다. 많은 우수한 학교들은 사실 기독교 계열이다. 고등학교 교육에는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작업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윤리 과정이 포함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애국적" 교육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친중국 성향의 홍콩 정부는 현재 교양 교육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책들을 학교에서 없애는 것을 포함한다.
홍콩 인구 750만 명 중 기독교인이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화 지도자인 조슈아 웡은 루터교 신자이다. 기독교 신앙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

2019년 6월 시위 때는 기독교인이 아닌 시위대도 합창 '주님께 할렐루야'에 동참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다른 이들을 돌보기 위해 손을 뻗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주제들이 두드러진다.

학생들은 이 운동을 "물의 혁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늘 아래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양보하는 것은 없다"는 중국 고전 텍스트인 타오더칭의 영향을 받은 이미지이다. 그러나 견고하고 강한 자를 공격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은 그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 물은 유연하다. 학생운동은 물처럼 중앙지도자도, 위계조직도 없다. 물은 어디에나 스며들어 있을 뿐이다. 물과 마찬가지로 시위는 동시에 다양한 장소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경찰력이 희석된다.

홍콩 기독교 학생들은 물에 대한 도교의 지혜를 활용하여 다른 종교의 통찰력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준다. 홍콩의 루터교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1930년 노르웨이 루터교 선교사 칼 라이켈트가 타오퐁산에 대화 센터를 설립한 이래 불교도들과의 종교간 대화.
현재, 홍콩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이주한 300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있다. 가우룽 모스크 근처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경찰이 건물에 많은 양의 파란색 염료를 뿌렸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슬람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연대 행동인 모스크를 씻겠다고 자원했다. 학생들은 그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이 테러리스트라는 편견에 맞서 싸우고 있다.

선두에 있는 학생들을 봄, 체포된 수천 명의 시위자들 중 40% 이상이 학생들이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체포되면서,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이 시위의 선두에 서 있다. 경찰봉에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뼈아팠다.

경찰은 시위자들의 얼굴에 직접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흰 셔츠 부대'라고 불리는 지역 갱단을 고용했다. 많은 학생들이 이상한 상황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판단되고 있다. 학생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현금인출기, 신호등, 상점 창문을 파괴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침입자들이 단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운동을 폭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의 도입으로 더 많은 체포가 이루어졌다. 웡은 법에 따라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의 정당을 해산시켰다. 현장의 현실은 변화하고 있으며, 도전이 커짐에 따라 미국 교회와 기업들이 홍콩에서 온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여행이 안전할 때, 대학과 신학교들이 그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홍콩의 맥락에서 이용할 수 없는 리더십 개발과 훈련이 지속될 수 있다.

나는 홍콩 기독교인들로부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다. 우리 미국 기독교인들은 종종 우리가 가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폭정에 맞선 선조들의 투쟁과 희생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홍콩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중국 중앙 정부에 의해 직접 건네진 보안법에 따라 사는 것을 포함하는 그들의 도전에 동행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요구된다. 우리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신학자 칼 바르트와 디트리히 본회에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민권 운동 중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념을 옹호하고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문화와 종교적 전통의 지혜를 활용하여 그들 자신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풍부하게 하는 동양과 서양의 최고를 구현하는 홍콩 기독교 학생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세션 2. 사회정의 대화

"판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낙인과 갈등 해결을 위한 신앙과 영성 리더십"

- 유엔종교화합주간 공식 주제 -

장 지 해
원불교신문사 편집부장

김 태 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로리타(키지아) 카스틸로
포콜라레 동양종교와의 대화 소장

이 준 석
사단법인 평화 상임이사

연사 소개

(좌장) 장지해 (원불교신문사 편집부장)

(패널)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로리타(키지아) 카스틸로 (포콜라레 동양종교와의 대화 소장)

이준석 (평화 상임이사, 원광대학교 교수)

장지해: 지금부터 2022년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사회 정의 대화라고 이름을 하여 보았습니다. 유엔 종교화합 주관 공식 주제인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낙인과 갈등 해결을 위한 신앙과 영성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시대 정신을 더욱 자각하여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인류 사회의 위기와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하기 위하여 어떠한 영성 리더십으로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대화에는 한 분의 좌장과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좌장으로는 장지혜 원불교 신문사 편집부장님 그리고 패널로는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님, 키지아 카스틸로 포콜라레 동양 종교와의 대화 학교 소장님 그리고 이준석 평화 상임이사 원광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은 원불교 신문사에 근무하는 장지혜 교무입니다. 이 시간에는 팬데믹 회복기의 낙인과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신앙과 영적 리더십을 주제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함께 해주시는 세 분의 패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님 자리에 함께하셨고요. 키지아 카스틸로 포콜라의 종교 간 대화 SR 소장님 먼 거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준석 사단법인 평화 상임이사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팬데믹 회복기의 낙인과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신앙과 영적 리더십은 유엔 종교화합 주간의 공식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 주제가 종교화합 주간의 공식 주제가 되었을까를 많이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큰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다방면으로 많은 어려움의 요소들이 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인종차별과 혐오 등과 같은 그런 사회 또는 세계적 문제도 오히려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언론과 또 기사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세상이 열리는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폐쇄성이 좀 강해지면서 나타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렇게 심화된 낙인과 갈등을 위드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종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의 종교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까 등에 대해서 함께 오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70여 분인데요.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갈등 사례 그리고 대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김태성 사무총장님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야기 전해주시죠.

김태성: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종교인평화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태성 원불교 교무입니다. 코로나가 2019년도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첫 환자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첫 환자가 공식 발표가 됐을 때 정부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대응책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22일 한국의 일부 신흥종교에서 집단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자 중에 한 분이 중국을 방문하고 확진된 상태에서 귀국해서 많은 신자들과 접촉 가운데서 많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1차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실은 종교 발 1차 팬데믹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 저는 2월 25일에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7개 종교 수장님 모임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7개 종교 수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제반적인 얘기를 했고 7개 종교 수장님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결그 결론으로 7개 종교 수장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하신 것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종교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첫 사례이고 아마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를 결의를 하신 건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종교로 인해서 증폭된 코로나가 종교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과 종교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차 팬데믹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잘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만약에 1차 팬데믹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 상황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이 완벽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8월 15일 다시 2차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그 팬데믹의 원인은 보수 종교 단체에서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야외 집회를 진행했던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발생이 됐고 이것이 제2차 팬데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교계에서는 또다시 종교 활동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팬데믹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저는 1, 2차 팬데믹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 종교와 정부가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라는 제안을 우리 정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에 실무 대표하고 KCRP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상시협의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대화를 통해서 종교가 이 코로나 시기에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또 정부는 정부가 겪고 있는 애로점을 공유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또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하나의 결정을 하는 순간에서는 서로가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계가 갖고 있던 많은 어떤 어려움과 불만들을 해소하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사례를 우리 종교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종교와 정부와의 채널을 구축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소통 채널인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거기에는 직능별로 종교를 포함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교육계, 문화계, 체육계 등 직능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그런 국민 소통 대화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라는 것이 한 1년 동안 저희가 활동을 진행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정말 난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쏟아지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과정이었지만 우리 종교계가 그 중심을 잡아주고 많은 그 직능별 단체에서도 자기 의견을 표하면서, 또 정부의 입장을 들으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많은 문제점에 대해 합의 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서 합의된 내용들은 정부에서 국민 대응 정책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모임을 제한하고 그다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그다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을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체계적인 어떤 그런 협의 구조 덕분에 국민들이 큰 불편 없이 이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지나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종교계가 처음에 1차 2차 팬데믹이 종교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종교 내부에서도 그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종교 간의 갈등과 또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것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가 종교 간 협력과 대화의 문화가 정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 간의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큽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도 종교 간의 어떤 대화와 협력을 저희가 정착시켜 옴으로 해서 이번에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런 갈등들이 표출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장지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교 발 1차 2차 팬데믹이 사회에 오히려 안정을 주기보다는 더 사회에 나쁜 쪽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종교들이 많이 비난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와 종교 간 서로 대화와 배려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서 어떤 역할을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점들이 됐던 것 같아서 그게 특별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사회적 낙인과 갈등 사례가 한국 사회의 일만은 분명히 아니었을 테고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로 부각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아마도 이런 과제를 앞에 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종교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종교가 가장 해야 할 일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한 낙인과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먼 거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키지아 소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스틸로: 저는 포콜라레 운동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종교와의 대화 학교 소장이기도 합니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 간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낙인 그리고 갈등과 분쟁 회복 다양한 화두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 종교도 다양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등 다양합니다. 종교마다 그 나름의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시킬 수 있어요. 정치적인, 영적인 삶 등 모든 측면에서 사람들의 발전을 위한 영적 차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바로 지난달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가 사회의 조화로운 화합이 되는 삶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종교와 신앙 간의 초월성과 황제의 신성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류의 영적 문제에 있는 지정학적, 사회학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필요한 의사결정들을 일깨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치가 결여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이 영적 가치라는 것이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황금률, 겸손과 비율, 종교 간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종교 간 대화라는 주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황금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종교들은 이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 영역 모두에서 사회 구축과 상처 치유를 위한 사회적인 차원의 활동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심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라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것을 당신의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는 전체 율법이고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의 이득을 자신의 이득으로 이웃의 손실을 자신의 손실로 여겨라.” 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하지 말라 너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남에게 권하지 말라” 이슬람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고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거부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리고 간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이런 감동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종교의 지침을 한 가지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실재하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는 갈등과 분열 증오와 차별과 같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사실 이는 40년간의 아시아에서의 대화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공유하고 있는 신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복음에서 이끌어낸 이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는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의 공통된 자연적인 소명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 인종, 종교, 연령, 문화를 초월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즉 한마디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타인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이 고통받는다면 그와 함께 고통받는 것이고 그가 기뻐한다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이 계율에 따라 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전략도 아니고 단순한 자비의 태도도 아닙니다. 개방성, 존중, 판단하지 않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의도, 모든 계획 등을 제쳐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심령의 가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 간단한 말이 우리에게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대화의 비밀이 됩니다. 신앙과 영성에 뿌리를 둔 이러한 사랑 안에서 종교와 문명은 모든 낙인에 대한 사회 정의와 치유를 향한 여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포콜라리나인 필리핀 메리 앤 폴렌티노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레이션은 포콜라레 자제인 치타 누오바의 인터뷰가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메리 앤이 일하고 있는 카메룬의 대학교 학생들의 수는 분쟁으로 인해 600명에서 10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불어권의 중앙정부로부터 영어권 사람들이 독립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잠잘 준비를 하던 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는 이 비명은 학생들의 기숙사에서 들려왔습니다. 메리언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8명의 무장한 반란 세력이 얼굴을 가리고 민간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나를 향하는 느낌은 결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랑스 군인들을 찾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포클라리나들은 프랑스 군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숨어있는 군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미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포콜라리나들은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기를 든 반란 세력들이 함께 갔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참 추웠는데 그들은 시내와 강을 건넜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묵주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고 반란 세력이 그것을 알아채고 메리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믿음의 여인이시군요.” 대답하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구가 겨눠져도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는 성모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포클라레 사람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꿈으로 만들어진 다리로 강을 건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이 두려워서 멈췄습니다. 반란군은 그녀의 얼굴에 겨누었습니다. “다리가 더 무섭냐 이게 더 무섭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건냈고 같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나머지 반란 세력이 합류하였습니다.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반란 세력들은 나머지 학생들이 살아있다고 안심시켜주었습니다. 결정적 시간이 왔습니다. 숲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분리주의자 그룹은 서로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 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잡고 있어야 할까 풀어줄까 죽일까”라며 논쟁을 펼쳤습니다. 한 명이 메리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를 아세요?” 메리언은 그의 얼굴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령 알아본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말하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란 세력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제게 친절하셨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 되었는데 메리언은 마을에 갈 때마다 모두와 친구가 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어려움, 일, 가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란세력이 동료들을 보더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여성분이 당신들에게 구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당신들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 숲에서 그 남자들은 대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주의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포클라리나의 신발이 물에 젖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말릴 수 있게 천을 가져다 주었고 또 다른 사람은 외투를 하나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고 신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어서 읽을까요? 제가 이어서 발제를 해도 괜찮을까요?

장지해: 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스틸로: 인터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가치에 대해서도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겸손과 비움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사분들이 공, 비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비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적 리더들은 겸손과 비움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느꼈고 우리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느 국가도 자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은 함께일 때 극복 가능합니다. 겸손을 뜻하는 영어 humility, 라틴어 어원은 휴무스라고 합니다. 흙 또는 땅을 의미하는 단어죠. 겸손해진다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원점에서 형성되고 운명이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같은 자연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평등합니다. 수단의 여성분 조세빈 바키타 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2년간의 노예 생활 이후 자유를 얻었습니다. 폭력, 채찍질, 차별, 공포,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숨을 안전

한 공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 입고 가시나무 관을 쓴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요 어떤 죄를 지었나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건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바키타가 말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네요. 저도 그래요. 죄도 안 지었는데 저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그녀는 고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잊고 고통을 이겨내려면 이 사람처럼 사랑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그를 따르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는 크리스천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그가 살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사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위해 생명을 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음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함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존재함을 믿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리가 위대한 사랑에 집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삶의 갈등에서 모두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저는 당신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한다면 물리적인 사망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모든 선함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랑으로요."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주리고 목마른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옷과 집이 없고 갇혀있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타인에게 입을 것을 살 곳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갈등에 맞설 수 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겸손은 공(空,) 아무것도 없음, 비어있음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대화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어있어야 합니다. 생각, 의도 등을 옆에 두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양 종교인들과 함께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타인의 피부속에 들어가야 관점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불교인은 무슬림은 어떤 시각을 가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우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 만들기를 위한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생태 경제적 다양한 목표를 위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포클라레의 영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간 대화의 근간을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셨을 때 버림받았음에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칩니다. 예수께서 비움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어머니를, 제자들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느낌도 잃었습니다. 그로써 그는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간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혼자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면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일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우리 앞에 놓인 악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있는 대륙의 아시아와 연합하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믿음의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한때 먼 곳이었던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40년 전 키아라 로깅은 동양 종교 학교를 만들었죠. 당시 서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서로의 종교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협력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우정 안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을 공유하고 함께 배웠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제한적이며 불안전했었어요. 하지만 함께 일했어요. 그러자 협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협력하고 교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다양할 수 있죠. 각자 다른 언어를 쓰니까요. 하지만 비움을 경험할 수 있었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공유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가르침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종교 간 대화가 서로를 채워준다는 걸 봤습니다. 악에 맞서는 의지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젊은 불교 신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프리아노트 수림 카이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크리스천 친구들과 함께한 삶은 나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더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바로 영어로는 suffering이라고 불완전한 번역이 이루어진 고성제, 두카 등의 초월이었습니다. 즉 나는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열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가 버림받았다는 것의 의미와 불교 메시지의 핵심의 연결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성제의 교리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퍼듀대학교 크리스천 명예 교수님인 도날드 미첼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사무량심(四無量心). 자, 비, 희, 사로 나는 포폴라리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삶의 어려움과 난제에서의 열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키아라가 한 경험과 비슷한 점을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바다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Samsara, 즉 윤회를 보고 겪을 때 평범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에 대해서 열반의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키아라는 48년도 편지에서 고통 속에 찾은 성스러움을 언급했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로 우리 자신을 던지며 사랑을 받아 완전한 기쁨의 바다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영혼은 성령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그는 기쁨이고 평화이자 평정입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질문을 받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깊게 하고 존중한 대화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해야 해야합니다.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악한 힘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 종교 생태적 조화에 대한 갈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률을 따라 겸손과 비움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과 영적 리더쉽이 혼란을 조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평화, 만남, 포용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지해: 네. 키지아 소장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많고 또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사용하셨는데요. 저는 종교마다 나름의 영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깊이 와 닿았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하신 말씀이 비단 종교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민사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갈등에 대처하는 데에는 종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는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전개하고 계신지 이준석 상임이사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사단법인 평화의 상임이사 이준석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 국어학을 전공한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에서는 현상을 볼 때 언어 현상을 볼 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으로 보는데요. 구조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언어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목적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계열적 관계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그 관계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라는 구조를 볼 때 역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사회 구조도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구조가 있고요. 또 그 표면적인 구조 아래 들어오는 그런 심층적 구조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현대 언어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 구조는 그냥 언어 현상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나,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상공업자들은 거의 자신들의 재산을 잃기도 하고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표면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심층 구조가 있습니다. 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볼 때 표면 구조 외에 심층 구조를 이제 meaning, 의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문장을 분석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회라는 이런 현상 구조 속에서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구조 말고 그 심층 구조에는 어떤 현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를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언어적인 것처럼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그 변화는 정말 아주 큰 변화였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고마움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일단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나뉘어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격리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가 안 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생활은 더 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 하니까 전부 원격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격이라는 이 새로운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소통의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겪고 있었던 심층 구조에 갊아 있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필리핀에 계신 키지아 소장님께서도 “하나가 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심층 구조에 더 큰 하나됨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커다란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이 되고요. 또 새로운 가치관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 술 마시고 막 시간 열두 시, 한 시, 두 시, 세 시, 네 시까지 그 길거리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24시 콩나물국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아홉 시 반까지 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아홉 시 반까지 밖에 안 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아홉 시가 넘어가면 사람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존야기라고 밤에는 밤기운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 그냥 새벽까지 취한 채로 아침을 맞고 하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경건해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또 밤은 밤대로 또 낮은 낮대로 그 지켜야 될 질서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새로운 심층 구조의 한 현상들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지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겉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심층 구조에 갊아 있는 어떤 이면이 또 있고 이것들을 함께 봤을 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새로운 소통의 변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태성 사무총장님과 키지아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유발 하라리가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에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식의 성숙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시민의식이 성숙이 되고 또 인종차별이나 혐오 이로 인한 낙인과 갈등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교가 이런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어떤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팬데믹의 이런 상황을 평화롭게 극복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사무총장님.

김태성: 코로나가 한두 국가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렇게 다 맞이하는 그런 세계적 위기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마다 이 대응 방식이 제각기 좀 다른 방식인데 그것을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해보면 첫째로는 정부 주도형의 어떤 대응책을 해서 강력한 정부의 정책을 통한 봉쇄로 코로나 대응책을 세운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응책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을 확실히 막는 데는 굉장히 효과를 크게 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각해야 해 볼 과제로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국가가 방역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그 대응의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자유를 보장을 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이 그냥 쉽게 퍼짐으로써 실제로 희생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일정 정도 정부가 주도하되 또 시민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델들이 어떤 것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유형으로 전 세계 국가가 대응에 임했다고 저는 그걸 유형을 나눴고요. 한국은 대표적으로 세 번째 시민과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대응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종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의 어떤 의식을 성숙시키는 데는 누군가의 배려와 그다음에 존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계가 그러한 모습을 희생적 자세로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거의 3년에 가까운 그런 코로나 대응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계는 이런 어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종교 내부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교육, 그다음에 일반 신자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문제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류에 닥쳐질 다양한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해서 다양한 어떤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지해: 키지아 카스틸로 소장님 계시죠? 팬데믹 상황을 평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죠.

카스틸로: 제 생각에 우리는 동양 종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자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원입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적기가 아닐까요? 펜데믹 기간 중에 비대면으로 많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죠. 우리 자신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젊은 층을 위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화에 주안점을 둘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인적 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도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함께 나누는 방법이요. 이러한 회의, 풀뿌리 차원의 회의에서 교육자들도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종의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룹을 구성해서 함께 고민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함께 영적인 자원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종교 관련 교육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관련 교육을 잘 올바르게 한다면 어떨까요. 삶에 존재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빈곤층도 아직 많이 있고요. 빈부 격차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제공하는 문화를 도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적인 차원에서요. 지역사회에서 나누는 경험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다른 많은 종교가 비슷한 노력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나누는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종교마다 우수사례를 나누는 대화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

고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이제 움직여야 하는 시점인데요.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를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생태학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관점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 됨, 그리고 비움에 대한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명성에 있어서 하나 됨은 무엇인지 비움은 무엇인지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을 봤을 때 비슷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관점도, 미션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에 대한 비젼도 물론 생각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봤을 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연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만물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교육도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모든 지식을 지금 다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종교연합부터 함께 시작해서 2년 전부터 시작한 우리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처럼 함께 이렇게 시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해: 서로를 도울 수 있다. 모든 걸 함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을 함께 나누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영적 자원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아시아가 할 수 있다 하는 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랄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가 결국에는 이제 사회 속에서 결국에 사람과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만물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교와 시민사회의 협력은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도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 사회 문제에 대처해 나간다면 그 효과나 파급력이 훨씬 크고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단법인 평화에서도 종교 간 협력 운동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화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종교와 시민사회 간 연대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이준석: 저희 사단법인 평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간의 연대를 통해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물론 출발은 조금 달랐지만 그런데 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의 실체적 운동은 아까도 우리 키지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입니다. 근데 이 소통의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냥 말을 하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을 할 때 미국 사람에게 한국어로 얘기한다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미국 사람에게 한국어로 얘기할 때 자기가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면 반드시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소통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원칙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 상대방이 알고 있는 배경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평화가 평화를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는 기독교의 언어로 사랑을 얘기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러 경전에 자비와 사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의 언어로 불교적 언어로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면 먹혀들지 않습니다. 아까 그 우리 키지아 소장님께서 비어있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우리가 사실은 비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갈등과 원망을 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어있기 위해서 비어있으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금강경에 나와 있는 비어있음에 대한 그 방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우리의 방법이 최고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 뭐 마음이 가난하다고 했지만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 번역본에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의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라는 말씀으로 이미 비어있음과 또 그 소통에 대한 나에게 도움을 청한 시민들에게 나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들에게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까지 가주는 그 마음이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금강경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보살이 보살도를 얻었다 하면 그것이 보살이냐 아니냐”라며 딱 종지목을 대잖아요.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면 그것이 아라한이냐 아니냐” 자기가 1억을 희사하고서 시사했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희사한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어서 그 순간에 없는 것 텅 빈 상태로 들어가야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아까 키지아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종교 간의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주세불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은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모든 종교에 그런 말씀들을 다 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군성이대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성현의 말씀이 다. 모여서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원불교적인 가르침 위에서 이런 시민사회 운동이 이루어질 때 저는 비로소 종교 간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의 문화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의 세계 하나 됨이 이룩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지금까지 우리 종교가 나는 이렇게 커 왔어 이렇게 나는 모양을 갖추고 있어”라는 그런 고유의 Identity의 목적을 두

고서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를 열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저는 KCRP 한번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각 종교들 마다 서로 다른 점들을 다 얘기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종교 간의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것은 종교연합이 나아가야 될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평화에서 늘 이 점을 강조하고 저희가 포클라레하고 함께 두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주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만히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죄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4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13경에 의해서 신약이 이렇게 쭉 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참된 정신은 부처님의 정신과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사랑을 피려고 하셨던 거예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주여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주여 저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옵니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 시민사회에서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저희 평화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실천의 운동입니다. 평화 실천의 운동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으로 하고 내 것에 꽉 차 있는데 원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뒤집어보면 은혜를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땅 위에 시민사회에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지해: 아까 이제 카스틸로 소장님께서도 가장 높은 차원의 겸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방금 상임이사님께서도 상대방에게 초점 맞춘 소통을 하려면 비어있어야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제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종교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가야 할 그 가치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서 어느덧 이 세션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패널분들께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평화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신앙과 영적 리더십을 평소에 어떻게 강화해 나가면 좋을지 그런 의견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한 3분 정도씩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준석 상임이사님.

저는 우리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팬데믹이 곧 은혜다. 이것이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천지가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될 사람들인데 조금 이르게 떠났을 뿐이고 하니까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순간순간 참회하고 그래서 원망을 내려놓고 정말 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옆에 있는 관계를 원망의 관계가 아니고 감사의 관계로 그리고 막힘의 관계가 아니고 소통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 자세를 정말 성현들께서 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그러면은 저는 이 팬데믹이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지해: 카스틸로 소장님 그 마무리 발언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카스틸로: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저 자신이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 자체가 사랑의 그런 방식 용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모으게 된다면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종교 리더로서 최고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지해: 김태성 사무총장님.

김태성: 저기 코로나를 이제 코로나 기원과 발생에 대한 규명이 아직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종교계에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은 이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산물이다.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원인과 이걸 규명했는데,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성장이라는 큰 정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개발,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개발과 발전이었고 자연환경 생태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방향으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코로나는 거기에 우리가 인류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학자도 같이 지금 공동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류는 앞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희망적인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둠과 터널 속으로 가고 있다는 걸 그

리고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에 문제가 있고 공기에 문제가 있고 이 기온에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기후 생태 환경이 인간이 살 수 없는 미래가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느 환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류에게 주어진 백신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종말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류의 운명을 한 번 경각심을 줘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고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아까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는 재앙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3. 종교 이해

"불교 배우기 : 음악을 통한 영적 전도"

(좌장) 무이치온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부회장)
(패널) 포위파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원)
티케휘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회원)
세드릭 탄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 부회장)

무이치온: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들 어떠신가요. 반응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줌을 통해서도 반응을 나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행복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기쁜데 다들 행복한 오후 세션 보내고 계신가요? 줌으로 반응을 보여주시겠어요. 리엑션 버튼을 줌을 통해서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느새 오후 세션인데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무이치온, 치온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세 명의 다른 패널분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드릭 함께하고 계시고요. 포위파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티케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명이 세계 불교도 청년우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죠. WFBY는 세계 불교도 청년우의회를 뜻합니다. 방콕에 본부가 있습니다. 벌써 50주년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5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청년우의회입니다. 7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션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불교 배우기 음악을 통한 영적 전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저희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조직인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패널분들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우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젊은 층이 특히 즐기는 젊은 층이 좋아하는 매체입니다. 다들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하죠. 패널분들과 함께 음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나눠볼까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할 때 음악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마무리 시점에 샘플로 음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저희는 세계 불교 청년우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강화시키는 모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년들 사이에서 전파하고 더 알리고자 합니다. 서로 함께 나누고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 된 원대를 지향합니다. 불교 청년들 간에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경제, 사회, 레크레이션 문화 그리고 종교 분야에서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인도주의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화와 조화를 추구합니다. WFBI와 협력을 하며 청년층의 조화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과 조직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청년층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이들과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름의 이름을 알려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W는 월드(world)입니다. 세상이죠. 세계를 뜻하는 것니까 우리는 국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통 분모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교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지역 센터를 국내에 갖추고 있습니다. WFBY의 국내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F는 펠로쉽(fellowship)을 의미합니다. 함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키워드는 평화와 조화입니다. 우리는 좋은 협력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협력을 더욱 많이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의 펠로우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형제 자매들끼리 정을 더욱 강화시키는 네트워킹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정을 쌓을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로 B는 불교(Buddhist)를 의미합니다. 세 가지 전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하야나, 테라바다 그리고 아자르나 불교에 대해서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우디스트 MTV라고 약어를 사용합니다. 불교 MTV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MTV라고 부르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더 친숙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앞 글자를 따 와서 MTV라는 애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 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나누고 프렉티를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Y는 청년(youth)이 되겠는데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의 리더가 될 텐데 이 리더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세계 불교도 청년 우의회는 1972년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WFBY가 스리랑카 콜롬비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계 불교 우위회의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청년 우의회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모든 이 불교 청년들을 함께 모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결의안이 나와서 WFBY의 제안을 통해 세계 청년 의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저희 기관에서 세계 불교도 중년 의회에서 11개의 핵심 메시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교 교육입니다. 저희가 커뮤니티를 지역사회를 어떤 불교의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가입니다. 또 이제 불교 전도는 다르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리더십 개발은 여러 가지 활동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청년 개발은 저희가 모든 이 불교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다르마를 배우고 어떻게 이 불교 청년들을 함께 하나로 하나의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 같은 이슈들도 불교문화도 함께 보고 문화와 전통과 또 음악적인 예술 창의적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술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포트폴리오도 있는데 불교 기업가들 어떻게 불교적인 가치에 기반해서 기업을 만드는지 이런 활동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투어와 하스피탈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관광 즉 불교의 가치에 기반해서 일본과 한국 대만과 등등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불교의 가치에 기반한 그런 수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기관과 함께 논의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또 종교 간 대화 많은 협업과 협력을 다른 기관들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합니다. 어떤 재난 상황이 있으면 저희 팀이 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가 일본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 11가지의 핵심 목표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 개발입니다. 청년 개발이라는 것은 이 청년 개발 하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문화간 불교 청년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짧게 줄여서 IBYE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국제적인 평화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교류 프로그램은 하나의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청년으로서 국제적인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씨앗을 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문화관 불교 청년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18세에서 25세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활동을 진행하고요. 게임도 하고 다르마도 함께 공부를 합니다. 한 시간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희 청년 개발 프로그램이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했습니다. 방콕도 있고 상하이 일본에서도 여러 번 했고요. 한국에서도 진행한 경험이 있고요. 스리랑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청년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을 개진했습니다. 문화관 청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를 모으는 핵심 공통점을 보면 바로 음악입니다. 오늘 이 음악에 대해서 발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저희가 음악을 사용해서 불교를 전도하고 다른 말을 전도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나누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 분의 다른 패널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음악을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에 접목을 하는가를 보면 음악이라는 것은 과학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우리의 기분을 조절해주고 우리가 음악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마음에 두고 우리 프로그램에 음악을 접목시키면 음악의 리듬이 사람들의 뇌와 동화되고 함께 연결되어서 다르마를 배울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세 분의 동료들을 모셨는데요. 수년간 협력해 온 분들입니다. 젊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불교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셔서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배경 또 불교 음악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왜 음악이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이런 영적 전도를 위해서 음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포위파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포위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포위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이치온: 그리고 티키 휘님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케휘: 안녕하세요. 저는 티키 휘입니다. 참석해서 음악을 통한 영적 전도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무이치온: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드릭 탄 저희 위의 핵심 인물이신데요. 문화 간 교류프로그램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드릭: 안녕하세요.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이치온: 세션은 다른 세션과는 좀 다른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영적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저희 패널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각각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제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불규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경험을 나눠 주시겠어요.
티케휘: 제가 불교학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한 스무 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불교 음악은 항상 저희 영적 과정에 함께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일요일에 교류를 배우러 갔을 때 다르마를 배웠을 때 항상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음악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불교가 불교 음악 그룹이 음악가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다르마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음악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살에 제가 이런 불교 음악 아이젠이라는 그룹을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합류하게 됐어요. 이 아이젠은 코알라루프르에 있습니다. 이제 크랭베리라는 곳에 있는데 제가 또 가장 최근 앨범 “Great See You Home” 이라는 앨범에도 참여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음악에 녹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무이치온: 감사합니다. 포위파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불교 음악에 대해서요.
포위파: 제가 시작한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노래하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었어요. 그때 공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불교 집안 출신이었지만 불교에서 이런 음악을 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기회가 생겼는데 젊은 밴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밴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재미있고 교제하는 방법으로 밴드에 들어갔는데 계속 진행하게 되면서 그 다르마를 담은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저에게는 배우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던 것은 저희가 이제 앨범 발표를 하면서 이 노래를 다르마를 닮은 노래를 전할 수 있었던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음악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으로 티키 휘님 말씀하셨는데 세계 앨범들도 같이 함께 그 목적은 음악을 통해서 불교를 전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이치온: 감사합니다. 세드릭님은 어떠세요? 불교 음악에서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드릭님 소개해 주세요.
세드릭: 저는 굉장히 어릴 때 시작했어요. 한 템플에서 시작을 했고요. 역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있는 절이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달마의 가르침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위치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공연을 많이 했어요. 공연 예술의 성취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지역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무척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불교 음악 작곡가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작곡을 많이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국제적인 그룹과 함께 푸알라루프에서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작곡 경연대회를 말레이시아에서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치치온: 세드릭님은 굉장히 경력이 길어서 사실 여기서 다 공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겠다. 왜 음악이죠? 왜 음악이 이렇게 영적으로 강력할까요. 각자 나눠주시겠어요. 누가 시작할까요.
티케휘: 제가 시작해 볼까요. 음악은 어떻게 보면 공통범위세요. 제가 있는 서클은 그렇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음악이 문의 역할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문인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워요 경전을 읽으면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사람들을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있는 것이죠. 음악 자체가 굉장히 쉽게 배포가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음악은 전달하기 쉽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쉽게 퍼지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이 음악을 접하고 불교가 무엇인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주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꼭 복잡한 내용일 필요가 없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분명 있자나요. 감사함은 무엇일까 등등 삶에서 실망감이 느껴질 때 우리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간단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을 사용하면요. 마음 챙김을 전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보면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좀 조금 차분해져요. 평화가 찾아와요.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요. ‘아 나 행복한

삶 살수 있구나 나 좋은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제 생각에는 음악이 가진 힘은 그렇습니다. 음악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무이치온: 흥미로운 나눔 감사합니다. 저한테 음악은 항상 심플한 것같은 음악도 복잡할 수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간단한 것도 이해는 가요. 음악 듣는 거 좋죠. 그리고 불교음악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닐수도 있구요. 네 포위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음악은 왜 강력할까요.

포위파: 제 관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많아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 많죠. 근데 말은 못 알아들어도 음악은 어떻게 수용이 돼요. 음악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이에요. 음악은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경계를 넘는 역할을 하는거죠 슬프든 행복하든 어떤 기분이 들든 음악은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분의 균형을 맞춰줄 수도 있어요. 음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음악은 분명 강력해요. 불교 음악은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들뜨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분을 조금 다운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기분이 다운됐다면 조금 업되는 게 필요하잖아.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교음악은 그런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음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음악은 우리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음악은 강력하다 그게 제 답변이 되겠네요.

무이치온: 바꾼다라... 음악의 리듬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음악을 들으면요. 다양한 언어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의 리듬이 들려요. 리듬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몸이 움직여요. 신나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포위파: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루브를 타자나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달라져요. 그렇게 나쁜 기분이 들지 않게 돼요. 순간을 즐기게 돼요. 제 생각에 음악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무이치온: 아 그렇군요. 그루브를 탄다. 알겠습니다.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디에 보면 음악이 주는 리듬이겠네요.

포위파: 그 리듬의 관점에서 말을 이어가자면요.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도 있습니다. 가사가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리듬이 다가 아닙니다.

무이치온: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사도 일부분이죠. 가사를 듣는 것도 음악 경험의 일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드릭님은 어떠세요? 음악이 왜 강력할까요?

세드릭: 한번 보자면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국가가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국가에서 나오는 음악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음악은

각 그룹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음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음악은 명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을 예시로 들자면 음악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죠? 노래를 들을 때 가사도 듣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그룹은 어떨까요.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차분한 음악을 좋아하실 수 있고요. 조금도 정중한 분위기의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룹마다 음악에 대한 취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룹마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음악은 집중력을 키워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가사 없이 그냥 음악을 듣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하는데요. 지역 문화를 반영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특정 환경을 반영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서구권의 컨트리 음악도 있고 문화를 나타내는 음악들이 있죠. 그리고 필리핀을 예시로 들자면 필리핀은 그 특색이 느껴지는 음악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챈팅도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타이완의 음악이 있죠.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그 정통이 있고요. 불교 음악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지금은 엄청 리더는 아니지만 타이완이 지금은 엄청 리더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다양한 국가마다 다양한 음악이 나오고 있다는 걸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무이치온: 그렇군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음악을 활용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르마를 전달하기 위해서 음악이 정말 강력하게 때문에 그래서 음악이라는 맥락에서 종교를 전달한다는 말도 되겠네요.

세드릭: 인도음악과 필리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음악 다르겠죠. 그런데 둘 다 강력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지 아시죠. 다르지만 둘 다 강력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음악들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한 가지 측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영어로 된 이야기를 듣는 경험은 또 다른 언어와 다를 수 있겠죠 여기서 메시지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음악이 전통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특징을 가질 수도 있는데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무이치온: 계속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말레이시아의 불교 음악인데요. 버디싱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젊은 불교 청년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새 앨범을 출시했는데요. 한 번 같이 보시고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불교와 다르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지 잘 들어봐 주세요. 이 음악의 그루브도 따라 하시면서 가사

도 함께 잘 들어주세요. 잠시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버디싱스의 카차뉴타입니다. 네 이 그룹을 보면 젊은 10대의 청년들 그룹인데요. 18세에서 25세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템플에 말레이시아에 모여서 다르마 스쿨에 와서 이런 노래 연습을 합니다.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작곡도 하고 불교 성가 노래를 하고 첫 번째 앨범을 코로나 기간 중 2년간 준비해서 첫 앨범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말레이시아에 한 가지 그룹을 소개해 드렸고요. 네 좋습니다. 그루브를 좀 느낄 수 있었나요. 아름다운 가사도 함께 들어보셨고요. 다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요. 티키 휘님 몇 가지 좀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계에서 불교 성가에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티케휘: 제가 이제 아이젠에 몇 년 전에 합류를 해서 아이즈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달마쿠다라고 여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달마를 일하는 사람들 달마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많은 충만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음악이죠. 음악이라는 좋아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불교의 교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젠의 멤버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노래를 작곡하고 공연을 하고 다양한 행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합니다. 저희가 이런 불교 행사나 또 여러 자선단체 행사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그런 주일학교처럼 다르마 학교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배우는 그런 음악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룹으로 가르침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아이젠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규모 행사에서 공연도 했어요. 저희가 2021년 최근에 했던 행사가 있었는데요. 다른 불교협회 말레이시아에 있는 협회와 협업을 했습니다. 타이완에 있는데 그런 단체들과 함께 음악에 있어서 협업을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다양한 국가에 있는 분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악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악이 마음을 서로 연결하고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이치온: 정말 흥미로운 얘기네요. 저도 이 아이젠 그룹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사람인데요.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 이제 막 졸업을 하고 나왔을 때 저희도 다 불교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활동을 했고요. 노래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함께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함께 그룹으로 불교 성가를 노래하는 것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아이젠라는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나와 다른 친구가 함께 모여서 챈팅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말 불교 음악 그룹의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인팩이나 아이팬 아이포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아이젠 젠 회사에서 오는 이름들을 정한 것 같습니다. 포위파님은 혹시 어떠세요. 불교 음악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포위파: 어떤 경험이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두 번 정도 초청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했던 것은 굉장히 큰 연례행사였는데요. 또 많은 그런 다르마를 가르치는 분들이 청중들이 한 관객들이 5천 명 정도 됐어요. 스타디움을 빌려서 진행했습니다.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스타디움이 있었고 하루 종일 행사 진행을 했고요. 아이젠이 한 이틀정도 노래를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그 정도로 초청을 받아서 가려면 좀 많이 공연을 해야해서 많은 공연을 했고요. 지금 2개 정도 앨범 안을 했고요. 다르마 활동들도 했습니다. 오프닝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르마 교사들과 강론들도 있었고 명상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음악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그냥 단순히 어떤 말이나 그런 강연이나 명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 외에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불교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행복해졌고요.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이치온: 정말 좋네요. 저도 스튜디움에서 공연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군중 앞에서 5천 명이라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포위파: 물론 떨렸고 엄청 긴장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있는 목적이 영적인 전도를 하는 것이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고 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우리도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이치온: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네요. 5천 명 앞에서 마치 그런 엄청난 가수 팬처럼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포위파: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가 굉장히 긴장하긴 했습니다.

무이치온: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네요. 세드릭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세드릭님의 이제 음악을 많이 들었고 세드릭님의 목소리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이런 불교 음악의 목소리 정말 여러 가지 언어로 부르시는데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불교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렉카 템플의 있는 팀과 음악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세드릭님 혹시 이런 음악계 관련 경험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드릭: 제 생각에 팀에 가치에 팀 중에 하나의 말만 전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이 같은 템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공유해요. 굉장히 가까운 그룹이에요 서로를 이해해요. 어떤 사람들인지 서로의 강점을 사람들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 시선을 잡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 알면 관심을 잡는 방법을 알면 메시지 전달도 쉬워져요. 저희는 공연 예술의 배경을 활용했습니다. 이 템플에서 같이 자라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자원들을 같이 활용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흥미진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걸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불교 음악을 하는데 지역문화를 담은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에 다가간 것 같습니다. 여러 NGO 그리고 다른 그룹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합니다. 많은 초청 받기도 했고요. 콘서트에 초청받았습니다. 연간 공연에도 갈 기회가 말레이시아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10개의 그룹을 모았었어요. 불교 음악 그룹을 이를 통해서 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야죠.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결국 사랑의 메시지가 돼요. 사랑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뭐 다양한 형태를 갖출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 됨이 중요합니다.

무이치온: 그렇군요. 노래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드릭님 제가 청해 들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세드릭님은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팀을 구성하는 입장으로써 많은 일을 지켜 보았어요.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 많은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 불교 음악 그룹들이 모이는 걸 보면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분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2천 명 정도 그 당시 2천 명 정도 이상 있었죠? 네 아마 천명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행사하나 하나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세드릭: 저희가 로컬 맥락에서도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할 수 있어요. 국가의 그룹들과 협력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같이 작곡도 하고 공연도 함께 끌어갑니다. 저희는 협력에 개방적입니다. 많은 기관과 많은 조직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개원되어 새로운 교훈을 항상 얻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경식을 할 때는 이런 교훈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음악을 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음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이치온: 그러시군요.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 됨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협력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그룹들과 전 세계적으로 다른 그룹들과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름다운 불교 음악을 전 세계를 무대로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지역에 국한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느낌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드릭: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연등제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불교 음악을 들었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말레이시아랑 달라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템플에서 춤을 추는 것도 제가 봤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은 '우리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르마를 익히고 배우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이치온: 예 좋습니다. 청중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 듣고 보고 계시죠. 만약에 협력을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음악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싶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 음악 협력을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불교 음악은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불교 음악이 어떻게 불교를 배우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나요.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젊은 층을 대표하고 계시죠. 밀레니얼 관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티케휘: 네 감사합니다. 되게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이론적인 관점이 아니었어요. 경전을 읽는다는 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앎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제게는 이론 그 이상이었습니다. 불교를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를 알아차리는 과일로 비유하잖아요. 과일로 비유하자면 과일을 보는 거랑 과일을 맛보는 건 다르잖아요. 제 생각에 불교에서 음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경우도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한때는 행복하다가도 그다음 순간은 슬플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삶의 여러 가지 풍파를 겪을 때 저는 음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삶에서 음악이 도움이 돼요. 음악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제게 음악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어요. 불교 음악을 많이 들을 때 침착해지는 차분해지는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제게는 음악이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럴 때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저는 챈팅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챈팅 음악과 메타 챈팅을 좋아합니다. 사랑과 친

절을 다루고 있는 음악 좋아하는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요. 회복이 됩니다. 음악은 저의 감정이 부정적이었다가도 긍정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이젠의 음악을 좋아하고요. 아이젠의 음악 중에 열반에 대한 음악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차이가 발생하지만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우리는 변화에 휩쓸리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어떤한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음악을 들을 때 가르침을 떠올리게 돼요. "아 이런 가르침이 있었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대비심을 가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음악은 저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평화로써의 회복을 시켜주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삶의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무이치온: 네 어떻게 이 불교 음악이 다시 평정의 마음에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어떻게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고 우리의 느낌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지 회복시키는지 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이런 기운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음악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포위파: 케이 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배우는 방식은요. 예를 들어서 노래 중에 아름다운 친구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보고 이것을 계속 살펴보고 이 노래가 우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오랫동안 사색해 봅니다. 이것이 이제 경전에서 영적인 우정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우정과 친구와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 진짜 친구 가짜 친구 이런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럼 이걸 좀 더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언급된 모든 것들을 이제 다르마에서도 찾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다르마는 결국 나한테 달렸다.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자면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도 학교나 대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노래를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음악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무이치온: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노래를 한 다음에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래서 가사를 통해서 이 가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그 가사로부터 불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포위파: 그 노래를 떠나서 이 경전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지금 전체적인 주제를 이해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제가 된다고 할까요. 이 가사를 통해서 경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무이치온: 네 세드릭 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불교 음악이 불교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세드릭: 지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템플에 가는 게 절에 가는 것이 그냥 어떤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사회복지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이유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앉아서 배운다기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챈팅을 하거나 음악의 행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어 합니다. 불교 성가도 불교 챈팅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교 노래를 학교에서 캠프파이어 같은 행사에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캠프파이어 행사가 있을 때 학교 행사의 일원으로 불교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요. 그 가사들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불교 음악의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 자체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불교 노래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의미가 노래를 하면서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저 자신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개념 불교의 그런 교리들을 노래를 하면서 배우게 돼요. 우리의 어떤 그런 감성을 노래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불교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좀 더 잘 개념에 공감하게 되고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노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 불교 개념을 배우는 것은 주저하니까요.

무이치온: 몰입하는 학습이라고 할까요. 몰입형 학습 그 경험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보고 그 가사에서 오는 느낌이 무엇인지 그루브를 함께 느끼면서 완전 학습 경험 자체에 몰입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티케휘: 네 맞습니다. 많이 탐색하고 모색하게 되는 경험인 거죠. 음악을 통해서요. 음악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이치온: 정말 음악이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불교 다르마를 배우는데 있어서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종교 관행에서도 음악이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런 지혜의 언어들 말들을 전하고 몰입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각각 종교의 교리들에 대해서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드릭님 가장 좋아하시는 불교 음악 무엇인가요.

세드릭: 불교 성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루한 느낌이 들 수 있기는 하지만요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그런 작업되는 노래들이 많은 감정을 자아내고 감정이 되고 그런 터칭에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가사들이 사용되고 감동을 줍니다. 이런 작곡된 노래들도 다 좋아하죠. 굉장히 간단한 불교 노래가 있는데 부처님의 자질에 대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 하나 자질을 설명하지 않고도 이 단순한 노래 안에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인 분이 작곡하신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은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하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봤을 때 뮤지컬 같았습니다. 그것은 노래를 할 때 그냥 그 가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불교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이치온: 아름답습니다. 위파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불교 음악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포위파: 정말 많은데요. 저는 매출팬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노래를 통해서 다르마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그분의 노래를 통해서 아 이 노래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카리스마를 통해서 느낀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분의 노래가 정말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무이치온: 저도 그 다르마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저도 노래 좋아합니다.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감명을 얻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 노래 자체에 몰입하게 돼요. 뉴트리페어라는 노래를 통해서요. 키위님은 어떠세요?

티케휘: 짧게 공유한 내요이긴 한데요. 아이젠의 열반에 대한 노래를 좋아합니다. 윌리 엘리언님께서 공연을 하신 바 있고요. 아이젠의 열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노래를 들을 때마다 뭐랄까 감동을 받아요. 삶의 풍파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면요 이게 제 현실을 반영해주거든요. 사람의 일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성찰이 되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 나는게 있어요. '분명이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에게는 심금을 울리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추천하는 노래입니다.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삶이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기분이 좋지 않다. 너무 풍파가 많다 그러면은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균형을 찾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위치온: 열반에 대한 노래라고 하셨죠? 스포티파이나 유튜브에 있을까요. 스포티파이나 유튜브에 있으면 쉽게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한가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여러 그룹의 구성원의 사진입니다. 패널리스트 분들의 얼굴도 보이시죠?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아이젠 그룹의 혁신도 보이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온라인으로도 많은 음악을 선보였어요. 아이젠의 앨범이고요. 보이시죠. 오른쪽에 키위님 보이시구요. 윌리엄님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노래를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이 그룹은 버디싱스입니다. 여러 번 보셨죠?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차세대 주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차세대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요일에 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음악을 즐기면서 함께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 또 보셨던 사진이죠. 또 하나의 그룹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자연환경이 있고요. 세드릭 님의 그룹입니다. 달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많은 공연을 말레이샤에서 펼쳤습니다. 중요한 그룹들과 불교 성가를 부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즐기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음악을 나누고 아이젠의 음악입니다. 한 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에 한 번 빠져보세요. 어떤 경험인지 궁금합니다.

무이치온: 네 이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세분 패널분들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친구분들이 한데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함께 발표해 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영적인 메시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음악이란 어떤 의미인지 나눠주셨어요. 공감하시는 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료분들로부터 저는 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분들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에 질문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음악을 일상에 적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답하시겠어요.

티케휘: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불교 음악이 다양하잖아요. 제게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매타 챈팅이 제게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일상에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제 링크를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화를 원한다면 매타채팅을 듣는 것 같아요. 음율이 있고 어떻게 보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 친절, 행복, 자유, 자기 자신, 타인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 일상속에서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또 다른

음악을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자아성찰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해주는 음악도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도 음악은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저에게 성찰을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거든요.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세드릭님, 패널분들은 어떠실까요.

포위파: 제가 답해보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하나 공유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저는 노래를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이 쌓였지만 살아가면서 문제들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내가 가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들 할 때도 있고요.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점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적용됩니다. 그런 노래 중의 하나를 골라서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단순히 듣는 거예요. 뭘 해야 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세드릭: 음악을 만약에 웨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불교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초청 행사에 대한 그런 불교 음악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분이 안 좋다. 그런 경우에 듣는 음악이 있고 또 평화가 좀 필요하다고 매타첸트나 이런 음악들을 들을 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즐거운, 재미있는 그런 음악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와 그런 상황에 맞는 음악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에너지가 가득 찬 느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음악을 찾아봅니다. 이런 음악들이 많거든요. 각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를 들어 기쁨을 주는 그런 음악들이 있겠죠. 뭔가 좀 기분이 즐거워지는 그런 많은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그런 음악을 선택해 주세요.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음악을 들으시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무이치온: 감사합니다. 세드릭님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해주신 노래들도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런 링크들 유튜브 링크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음악을 사용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가르침 다른 말을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세드릭님, 위파님, 케이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세션 4. 종교와 평화 대화

"종교와 긴급구호 : 우크라이나에서 종교 간 협력 사례"

한 영 훈
원불교 예비교무

박뾰뚜르
아사달 대표

김 영 주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조 원 형
세계봉공재단 교무

연사 소개

(좌장) 한영훈 (원불교 예비교무)
(패널) 박뾰뚜르 (우크라이나 한인협회 〈아사달〉 대표)
김영주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조원형 (세계봉공재단 교무)

*안내 :
1) 박뾰뚜르 우크라이나 한인협회 아사달 대표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현지 활동을 촬영한 사전 녹화 영상을 스피치 대신 방영 했습니다. 관련 영상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투브 : 2022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검색)

한영훈: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영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종교와 긴급 구호 우크라이나에서의 종교 협력 사례라는 주제로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종교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현재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최근 러시아의 예비군 동원령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전쟁이 더욱 장기화되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도 함께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탄과 총성이 끊이지 않는 이곳 우크라이나에서의 종교 협력을 통한 전문적인 구호 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패널 세 분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이신 김영주 목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봉공재단 사무국장이신 조원형 교무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구호 NGO단체인 세이브더 칠드런에 따르면 고국을 등진 우크라이나인이 1천만 명에 달하는 등 난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안전 문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조원형 교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원형: 전쟁이 시작한 2월 24일부터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해서 우크라이나 서부 근접 지역인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3분의 1, 30% 정도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또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지금은 전쟁 인접 지역으로 다시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가는 난민들이 있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

이나로 나가는 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이나 혹은 육체적인 문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잘 그런 부분들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은 전쟁 상황이라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그 준비를 하고 나간 것이 아니어서 굉장히 어떤 위협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폴란드 지역으로 많은 난민들이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바로는 난민들 같은 경우가 주거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폴란드 지역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 이십오 퍼센트 정도가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는 난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주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피해라든지 그런 문제 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들이 계속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난민 같은 경우는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쟁의 위험이 좀 덜한 편이고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쟁의 직접적인 위험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이 전쟁의 위험 속에 생존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도 파괴가 되었고 언제고 미사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실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존 문제 등에 있어서 가장 직결된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혹시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라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이곳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생존의 가장 큰 위험에 직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의 기능이 사실은 돌아가서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붕괴가 되어 있고 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먹는 문제라든지 혹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쟁이 일어난 순간부터 발생을 했지만 동부 지역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돕는 단체에서도 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동부에 있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차로 이동해서 물품을 지원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훈: 원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많은 NGO들 역시 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향한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주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주: 뭐 일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상황을 다 잘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라든지 어느 지역이 수복되었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가 주로 이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교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우리 종교단체는 물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고 애를 많이 써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권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하고 또 하루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 오늘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저희 종교인들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훈: 모든 전쟁이 그렇듯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치열한 이권 다툼 속에서도 오직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 종교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남북 평화재단과 세계 봉공재단은 종교 간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김영주 목사님께서 이 남북 평화재단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종교 간 협력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김영주: 저는 남북 평화재단은 한국의 긴급 구호 연대라는 임시 조직을 했는데 그 조직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는 30개 단체로 국내에 있는 30개의 종교사회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여기가 주요 교단이 이렇게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국 YMCA, YWCA 그리고 이런 그 원불교 여성연합회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를 대표해서는 한울안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들 각각 자기 종교들이 또 그 현지와 연락되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추자는 목적 아래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소식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요? 우크라이나의 현지에 엘리오스 우크라이나라는 그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된 그 시민사회 단체인데 이 단체가 각 지역 별로 잘 조직되어 있는 구호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와 MOU를 맺고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돕는 협력하는 조직으로 하되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 이렇게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거는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을 육체적으로 치료도 해야 하고 또 정신적 충격이 심하니까 정신적 치료를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열전 지역이 아닌 서부 지역에 한 셀터를 만들어 여성 셀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 치료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하고 또 그분들이 이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었다고 그 쉼터를 조

직하는데 필요한 돈이 좀 필요하다. 해서 우리 단체가 서로 협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했더니 원불교 쪽에서 원불교 여성회 여성연합회와 한울안 공동체가 합의를 해주셔서 그 셀터를 리모델링 하는 병원을 하나 빌려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을 빌려서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울ㄹ안 공동체의 원불교 여성들이 여기를 그러면 그 세트 하나는 우리가 맡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긴급 구호연대 이름으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을 갖다 리모델링 해갖고 운영을 하는데 여성들이 한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용하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운영비가 한 천오백 불 지금 환율이 올라서 그게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천오백불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1500불을 매달 우리가 각 단체별로 분담을 해서 매달 운영비를 권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지역은 아까 열전 지역인 전쟁에 있는 동부 지역에 드니프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뭐 폭탄 소리도 들리고 미사일 소리도 들리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그 도시에는 전쟁이 없으니까 바로 인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온답니다. 그 듣는 이야기로 하루에 천오백 명 정도가 그 지역으로 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이 활동을 하고 그분들을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있다가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 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로 옮기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는 그걸 드니프로 허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허브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한 달에 천오백 불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를 좀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긴급 구호연대는 아까 말한 대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 셀터와 드니프로 허브의 두 지역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전쟁도 폭행을 당해서 이빨이 다 치아가 완전히 망가져버렸는데 혹시나 이 치아를 치료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요청이 와서 지금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훈: 다음은 조원영 교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봉공재단의 종교 협력 사례를 알고 싶은데요. 이 종교 협력을 통한 구호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원형: 세계 봉공 재단은 원불교의 재해, 재난 구호대 은혜 심기 운동본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단체로서 국내의 일들과 국외의 일들로 나눠져 있는데 국 외에 이런 재해재난이나 전쟁 등의 사태가 나면 세계 공공재단이 전체적인 책임을 맡아서 교단에서 모금도 진행을 하고 이러한 구호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이쪽 우크라이나 쪽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보고 협력을 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불교 NGO인 사단법인 더프라미스와 그리고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메디피스라는 NGO와 함께 합동지원팀을 꾸려서 그러한 사업 등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업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합동 지원팀이 함께 독일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함께 지원 사업을 펼쳤는데요. 먼저 독일에 대한 사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독일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도 소수 인종이 있습니다. 이 소수 인종 같은 경우는 유색 인종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아프리카 출신이라든지 사실은 육안으로 보기에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국가에 가서도 이분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쉘터도 얻을 수 없고 지원품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지 베를린에서 단체와 협력해서 그 당시에 이제 메드피스, 더프라미스 그리고 세계 봉공재단이 함께 그곳을 방문해서 거기에 계신 유색 인종 난민분들게 쉘터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런 어떤 언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 중에 이제 유럽 베를린 쪽에 머물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취업을 한다거나 일을 할 때는 언어의 부분 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 교육 등의 부분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지역에서는 저희가 폴란드 한인회에 있는 한인 연합회장님과 같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한인회를 통해서 폴란드 현지 지역으로 나오는 고려인들을 돕는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또한 폴란드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서 물품을 직접 우크라이나 내로 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그리고 이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그 물품들 중에서 특별히 필요한 물품 등이 어린이들의 어떤 영양을 위한 비타민이라든지 그리고 긴급 의료 물품이라든지 혹은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음식이나 위생의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칫솔이나 치약이 바로 이렇게 세면도구까지 들어있는 어떤 세트 등이 굉장히 유용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지에서 구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수프 같은 것들 그런 물품들 위주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현지로 지원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던 게 독일 지역부터 해서 굉장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 구호 물자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이 물품 등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게 랜덤으로 이 물품을 받아서 보냈었는데 참 기대를 하고 거기 현지에서는 받았었는데 필요가 없는 의료 물품이 의류 물품들이 한 75%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들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지원을 했던 것인데 앞에 말씀해 주셨던 아사달의 박뽀뜨르 대표님이 저희 합동지원팀의 현지 파트너입니다. 현지 파트너 기관이셔서 앞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니

프로라는 지역이 동부 지역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허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수많은 난민들이 일차적으로 드니프로에 모여서 거기서 좀 정비를 한 뒤에 서부 지역인 리비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아사다르 같은 경우는 리비우에 총 본부가 있고 그리고 드니프로에도 긴급 본부가 있어서 리비우 지역에서 있는 기본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드니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사실은 그런 물품 등을 실제로 구 서부 쪽에서는 구입할 수가 있어서 구입해서 동부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물품 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현지에 보면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있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다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커다란 차량도 함께 구매를 해서 서부 지역에서 한번 동부지역 물품을 가지고 이동을 한 다음에 동부지역 조금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난민들도 사실은 구호하고 이런 활동까지도 연계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무래도 합동 지원팀이니까 이제 종교로 연합한 부분도 있는데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의 심리 지원 같은 경우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 등이 있어서 저희가 우크라이나어로 아이들의 동화라든지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심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현지 활동가들에게 현지에서 어린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데미지나 아니면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단 안에서는 큰 단체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커다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돕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합동 지원팀을 통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이번에 도움을 주면서 사실은 각자의 특성과 함께 작은 힘을 모아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활동을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훈: 두 분의 종교 간 협력 사례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구호 활동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자 수급 문제에서부터 인력 부족 문제 또 비협조적인 정부 관료 기관 등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조원형 교무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지 구호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조원형: 먼저 사업의 착수부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NGO 기관 등이 활동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이나 지금 동남아 지역에 7~80%의 활동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떤 개발 도상국이나 어떤 식량이나 혹은 이런 어려움 등을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사실은 겪기 때문에 저희 활동 등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고 유럽 지역에 이런 활동 등이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지의 네트워크 등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하는 절차 등이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지 파트너를 구하는 일부터 이런 것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아사달을 만나기 전에 한 2개 기관과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혹은 언어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그리고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사달 등 원래 이런 국제 구호를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모든 단체 등이 사실은 그런 구호 활동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단체들과 또 이게 어떻게든 긴급한 상황이 도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현지에 방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은 앞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공식적인 어떤 단체라는 것들을 인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는 어떻게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이라서 국내에서 그런 물품을 들여온다든지 혹은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인력 등을 데려왔을 때 그런 의료 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사실은 국내 의료 인력들을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혹은 그 의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당시에 고려대 의대에서 이런 의료 지원을 왔었는데 의료 물품도 이걸 압수당하고 현지 활동도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난민들이 사실은 그쪽에 방문하게 되면 난민들이 모여 있는 커다란 어떤 숙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해나 재난이 나면 그런 체육관 같은 데로 임시 거처들이 마련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방문할 때도 보통 군인들이 그곳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왔지만 한국의 NGO 단체라는 것들을 굉장히 인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부터 그런 인증서를 가지고 갔음에도 현지 폴란드 안에서 그런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의 시간 동안에 그 인증을 받아내고 그리고 현지에 들어가서 난민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난민들의 어떤 신변이나 아니면 정부가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 쪽에서는 이런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엄한 편이어서 그런 검열 절차나 아니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엄한 편이어서 더 활동에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현지의 네트워크나 저희가 원래 활동하던 그런 방향이 아닌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저희 협력하는 속에서 조금 풀어내는 일들이 많았고 현지에서는 그런 어려움 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영훈: 다음으로 김영주 목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에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남북 평화재단 좋은 친구들이 이 실무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를 조직하고 또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캠페인 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모금 활동 및 긴급 지원 등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주: 조금 전에 우리 교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전쟁 중에 있는 현지에 우리 한국 구호단체가 직접 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믿을 만한 구호단체가 이 일에 나서야겠는 지점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게 어느 단체들이 가서 그 근처에 가서 뭐 숙소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림이 보이니까 '아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무님께서 여러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각 단체들이 서로들 연대할 수 있어야된다. 잘못하면 좋은 일을 하는데도 조직 이기주의가 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모금단체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가 하는 일을 다 폄훼하기도 합니다.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것 중 하나는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무님이 말씀하셨던 요청이 이제 크리프로 시에서 이웃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해도 차량이 필요해서 드리프로 엘리오스 쪽에서 우리한테 차량 지원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차량 지원이 각 단체별로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 차량 지원은 이 단체가 하고 식량은 긴급 식량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될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모금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운영 되서는 안 되고 그 저기 고통을 받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서로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럽은 아시아 아프리카보다 더 잘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시아 아프리카를 돕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종교와 시민사회와 한국의 전문적인 국제 기호 단체들이 서로들 정보를 나누어서 어떡하면 우크라이나를 진짜 도울 수 있겠는지 공감대를 빨리 형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경험으로 제안한다면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 필요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미팅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이것 좀 도와주시라"라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교육 전문기관이니까 이 우크라이나 교육에 도움을 줘야겠다, 우리는 긴급 구호 단체니까 우리는 셀터를 제공해야겠다, 우리는 의료 전문기관이니까 의료 봉사를 해야겠다.' 등 전문 분야를 분산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우리 한국 내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봉공 센터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류 언론을 보면 또 소수의 몇몇 단체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사람의 그 생각을 반쪽짜리로 만듭니다. 우리 한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흑과 백만 있고 아군과 적군만 있지 그 이게 중립지대가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이 7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분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로 형성돼서 한국 사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사회가 이 우크라이나의 이 부분까지 좀 보듬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도 친 러시아냐 아니냐 하는 등의 입장을 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시민 우크라이나 시민들하고도 한번 교재를 해봤는데 그분들 사이도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분들도 자기들 생각이 있고 거기에 전쟁에 상처를 직접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긴급한 긴급 구호도 있고 또 전쟁 이후에 이 사회의 변화에 우리가 좀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겠는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종교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역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북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신과 대립의 상황에서 우리 종교계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김영주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김영주: 저는 그 작은 경험이지만 정치적 국토적 통일 문제는 정치가들의 몫이라고 한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협력은 우리 종교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전쟁도 말씀하셨지만, 동서독의 통합이 되고 난 뒤 독일 동독을 방문한 적이 있고 서독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동서독도 사상의 차이 때문에 나누어져 있던 그대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고 일등 시민이 있고 이등 시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도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북쪽을 바라보는 시각, 통일 후 한국 사회의 경제에 대한 시각, 정치에 대한 시각 등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도 저는 이게 다름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교의 제일 중요한 가치인 화해, 화합, 통합 등의 기능들을 우리가 한번 종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교들끼리 서로들 협력하고 협의해서 두 가지 아까 말한 대로 긴급 구호는 긴급 구호대로 하고 그 이후에 남는 이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면 우리들의 노력들이 훨씬 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웃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열다가 보면 우리끼리도 협력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가 그 추구하고 있는 이 상생 평화 등의 가치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이 핵전쟁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시민사회단체나 종교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빈 자리를 우리가 의무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서로 열어놓고 대화하면 결국 그것이 세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훈: 같은 질문을 조원형 교무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내전과 외전으로 갈등과 분쟁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종교계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조원형: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고요. 사실은 종교가 해야 할 근본적인 역할 등은 평화와 평등 그리고 화합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가진 역할 등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통합이라고 한다면 종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정신적인 어떤 교감과 통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사실은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낮고 어려운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는 많은 분쟁이 있고 특히나 올해에는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수많은 재해재난이 발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은 얼마만큼 이 그 아픔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가, 그중에서도 가장 낮고 어려운 지역에서는 어떤 다른 곳보다 종교가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되고 평화와 상생이 얼마만큼 이렇게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느냐가 종교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에서 이제 누가 뭘 했냐가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정말 공감이 됩니다. 누구보다 우리 종교가 마음 새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실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나 사실은 정치나 혹은 또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관심 등이 모이고 에너지가 모이고 자원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데 어느새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지원이나 혹은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이 사실은 그 당시 고통받는 이재민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그런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이 세계 봉공재단에 근무를 1년 차 시작하는데 근무를 시작하고 방문한 곳이 동해였습니다. 그래서 동해 올해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집을 잃은 이재민분들에게 따뜻한 밥과 세탁을 하는 봉사를 진행하였는데 처음 일주일간은 진짜 모든 방송국과 모든 정치인분들과 모든 기업에서 방문을 하셔서 오히려 이재민 분들을 더 귀찮게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였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는 시점부터 해서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지속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저희가 연합했던 더프라미스와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재민들의 심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9월에 추가로 2차 지원 물품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골든타임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 사실은 어떠한 자원이 모이고 지원금이 모여서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득이 있지도 않고 어떠한 스포트라이트가 있지 않고 근데 그 속에서 묵묵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종교의 역할이지 않나 그래서 가장 낮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종교의 역할이지 않나 이것들이 참 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은데 정말로 그 빈 곳을 사회의 빈 곳을 메우는 것들이 종교의 역할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영훈: 물론 이 전쟁 이후에 우리 종교가 이런 인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 종교가 정치와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원형 교무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종교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원형: 저는 사실은 지금 인류가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지금 물질적으로 봤을 때 생산하는 식량에서 사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맞는데 굶어 죽는 사람도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자원을 너무나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구의 위기를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하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다 함께 성장을 덜 하는 세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한정된 이미 자원은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계속 연대가 이루어지고 계속 어

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런 연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를 하는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단체에서도 우리 단체의 어떤 경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금을 하는 직접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단체에서는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것보다 필요한 일들을 해야되는 단체들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먼저 나서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규격을 허물고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런 연대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려면 나의 지역 나의 가정 나의 국가 그런 틀을 넘어서 요새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들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어떤 틀을 깨고 이 세계 시민의 어떤 그런 사상 등을 가지고 연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종교가에서 각자의 어떤 그런 교리나 혹은 교단이나 혹은 그런 지역이나 그런 그것들을 놓고 하나 되는 연대를 보일 때 사회에서도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미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서로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연합을 이루는 명의 세계 시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훈: 조원형 교무님께서는 우리 종교가 이 종교 연합의 필요성과 사람들의 세계 시민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세상에 많은 전쟁 가운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뿐만 아니라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한 전쟁 역시 많다는 점에서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여러 종교단체들과 또 시민사회의 평화로운 연합 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주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우리 종교계가 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주: 종교가 세계 평화를 포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돕는 겁니다. 어려움 고통 받고있는 이웃을 외면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전쟁의 경험을 했던 우리 사람들 우리 한국 시민사회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도록 평화 캠페인을 우리 한국 종교가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꼭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색깔이 다르고 각각 개성은 있지만은 그것이 모여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듯이 흔히들 사람들은 자기의 색깔 말이 최상의 색깔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 다시금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자기 빛깔을 뽐내면서도 바로 이웃에 또 다른 내보다 훨씬 더 빛나는 빛깔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도 많은 종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개신교도 교파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종파 같은 경우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들 자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우리 평화의 빛깔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종교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으면서 우리 종교가 특히 한국에 있는 우리 종교가 한국에 있는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 번 모이는 연습을 해야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각 단체들이 뭘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들은 뭘 요구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함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평화고 결국 그게 세계의 평화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영훈: 원불교의 3대 종법사이신 대산 김대거 종사는 1970년부터 국제연합기구인 UN과 발맞춰 종교연합기구인 UR창설을 역설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한 종교연합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목사님께서는 이 종교 연합기구인 UR창설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 종교연합의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 저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대표회장을 지내면서요. 우리 한국에 있는 종교단체들과 같이 교류도 하고 또 원불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앞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저도 그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 연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연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솔리데리티 그리고 그 이게 연대 어떻게 서로를 연대할까 다양한 색깔 아까 말한 무지개 색깔을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색깔이 서로 존중되면서 서로 상대를 해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만약에 종교연합이라는

뜻에 포함돼 있다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국제 조직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WUCC가 있고요. 정교회와 개신교가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는 잘 아시는 대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국제 조직이 들이 있고 원불교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출발했지만 상당한 부분 국제연대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재해단체들이 협력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원불교의 대종사께서 세계의 평화를 하도록 꺼내시고 그걸 위해서 종교 연합을 주창한 것은 굉장히 그저 우리가 그때 그 종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거죠.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아직 독립도 안 된 상태에서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굉장한 탁견이시고 굉장히 예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어 우리가 그 정신을 저에게 이어받는 원불교 교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협력하는 거 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훈: 감사합니다. 종교 세계 공공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조원형 교무님께서는 종교 연합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종교연합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과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형: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다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무지개가 조화를 이루면 하나의 빛을 내듯이 종교의 변질이라는 것들은 그 하나의 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대 종법사이신 김대거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원주의 그리고 정산종법사님이 그 뜻을 받으신 삼동윤리 그것을 받들어서 전 세계에 종교 연합 기구인 유월 창설까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불교의 기본 정신은 사실은 정말 실천하는 것에 있는데 이러한 실천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연합이라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사실은 연합에 대해서 앞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대라는 말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종교 간 단체 간에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많은 고민이 있고 교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의 나이에 있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교무가 되기 전에 종교청년 평화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다른 종교의 청년들과 성직자도 계셨고 성직자가 아니신 재가분들도 계셨고 같이 이제 교류를 하고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활동 등을 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요새는 지속 가능하다는 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화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것들을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연대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런 활동 등이 조금 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활발해지면 어떨까 그리고 각 종단마다 아마 이 새로운 젊은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같이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연계를 하면 이런 것들이 또 젊은 세대로부터 일어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경험이 적어서 이런 목사님께서 계속하셨던 이런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많이 배워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것보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 것 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진 어떤 교리적인 너무 시각에만 메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연대하고 공유하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 저는 아무래도 경험이 미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드릴 말씀이 없지만 다른 부분보다 청년들의 어떤 활동 등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영훈: 네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동서고금의 모든 성현들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인류의 진정한 행복으로 그 본질이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비롯한 수많은 갈등과 대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 역시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가 연합을 해서 반목과 상극의 기운을 상생의 기운으로 돌리고 고통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으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평화재단 이사장이신 김영주 목사님 세계봉공재단 사무국장님이신 조원형 교무님 감사합니다.

세션 5. 지식 대화 - ICCGC Talks 1

"트렌드 리뷰 : 세계시민성을 위한 변혁적 리뷰"

허 석
원광대학교 교수

정 우 탁
GPE 한국대표

연사 소개
(좌장) 허　석 (원광대학교 교수)
(패널) 정우탁 (GPE 한국대표, 前 UNESCO APCEIU 원장)

허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근무하는 허석 교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 한 세션의 일환으로 세계 시민성을 위한 변혁적 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 정우탁 박사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최근 변역적 교육 영어로는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제사회의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유엔에서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 서밋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무엇이고 이 변혁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 삶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신 정우탁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박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탁 박사님께서는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982년부터 30년 동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오셨던 유네스코 활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정우탁: 저도 영광입니다.

허석: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트랜스 포밍 에듀케이션 변역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우탁: 트랜스포밍 에디케이션 하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짐작은 가실 텐데요. 변역적 교육이라는 게 번역인데 이게 굉장히 항의하는 바가 아주 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육관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 이런 전통 이런 걸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수단을 동원한다고 주로 교육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교육적 기능이라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 보다 평화로운 세상 더 나은 어떤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교육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이 오히려 뭔가를 이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아주 주축이 되는 그와 같은 게 교육이라고 보면 그런 교육의 기능을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겠지만 변혁적 교육이라고 하면 아마 교육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지구에 좀 더 뭔가 좀 바람직한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할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변혁적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석: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전통이나 유산들을 후대에 물려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를 새롭게, 보다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에 사실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트랜스포밍 에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정우탁: UN에서 이번에 이런 회의를 열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터미놀로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갑자기 이게 나타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UN, SDG 2015년에 채택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4번 17개 중에서 네 번째 교육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은 일곱 번째가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저희가 SDG 4.7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는 UN 회원국들이 채택할 때 두 가지 교육을 채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두 번째는 세계시민교육 이 두 가지가 SDG 4.7의 핵심인데 제가 보고된 이 두 가지 핵심을 포용적으로 묶어서 그 성격을 드러내서 설명한 게 바로 트랜스포밍 애드케이션 변혁적 교육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우리가 그냥 쭉 전통 옛날 걸 이어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 지구 우리 인류 공동체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변혁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기도 했고 그 핵심은 제가 보건대 SDG 4.7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석: 유엔을 중심으로 그간 교육의 어떤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2015년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의 큰 축 중에 하나로 교육을 삼았고 그 교육의 핵심 어떤 철학이나 내용을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으로 담았고 이 두 가지 축을 이번에 트랜스포밍 에디케이션에서 하나로 녹아내는 그런 어떤 큰 어떤 흐름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축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 내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우탁: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전사 전 역사를 보면 환경교육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환경교육이 사실 우리 교육에 포함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근대 학문에서 우리가 물리학 생물 역사 질의 이런 언어 같은 걸 배우는데 환경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은 1960년대 침묵의 봄이라는 책 이후에 또 우리 지구 전체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공해라는 것, 자연 보존이라는 개념 그걸 다 담아서 아마 거의 1980년대 90년대쯤 돼서 환경 교육이 이제 나타나고 각국에 소개됐는데 이게 이제 2002년쯤 오면서 요한네스버그에서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그때 주도한 나라들이 그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무분별한 경제 성장 이런 걸 하면 아마 지구는 망가지고 인류는 파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중에서 일본이 이 이슈를 잡고 UN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UN 지속가능 발전 10개년 그래서 영어 약어로 UNDESD라고 하는데 그 10개년을 하면서 전 세계에 확산을 시켰죠.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주로 환경 문제를 좀 더 다루면서 좀 더 폭넓게 환경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뭐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도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개념으로서의 지속가능 발전 이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2015년까지 오게 되고요 그 와중에 2012년 9월에 당시 UN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이제는 세계 시민을 양성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그런 얘기들은 많이들 할 수 있는 건데 UN 사무총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국제사회의 반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얘기를 들은 나라 사람들 여러분들이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대한 각성을 하면서 그걸 좀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반 총장님이 우리 한국인이어서 더 가까웠던 것도 있고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교육계 우리 교육부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유네스코 기관으로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이거 한 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교육을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부각시켜보자"라는 움직임이 2012년부터 이루어져서 13년, 14년, 15년 한 3년간 UN 유네스코 이런 가정에 활동을 해서 2015년 9월에 UN본부에서 SDG 17개 목표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를 채택할 때 유럽과 일본에서 적극 강조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아랍의 카타르, 오만, 또 유럽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호적으로 이걸 또 적극 지지하고 해서 이게 SDG에 들어가면서 4번이 교육이고 그중에 거의 7개 교육 타겟이 있고 세 가지 인풋 타겟이 있는데 일곱 번째 마지막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이 두 가지가 크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제가 보고는 그건 진짜 변역적이라고 보는 게 그전까지 UN 유네스코에서 특히 이제 유네스코에서 교육을 다루면 EFA, 에듀케이션포올이라고 해서 주루 된 내용이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를 많이 건설하고 교실을 만들고 또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을 양성하고 또 교과서가 있어야 되니까 교과서를 찍어서 이렇게 하는 하드웨어 쪽에 주로 목표를 세웠는데 2015년에 SDG 4.7 이런 하드웨어는 아니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철학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가를 담은 거기 때문에 이게 획기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구를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를 생각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그리고 이제 민족 국가 단위로 국민 국가 단위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그걸 넘어서는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성 이 두 가

지를 담은 것은 제가 보고는 정말 변혁적 이런 운동 변혁적 결의라고 저는 굉장히 이건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석: 그 두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왜 교육을 하는 것이며 그런 교육의 어떤 결과물이 이 사회에 정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의식이 더 많이 필요성이 증가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 글로벌 위기로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지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트랜스포인 에디케이션에서 담고 있는 어떤 교육의 목표 교육의 방법 어떤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정우탁: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초등학교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융합적으로 오다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분과 학문별로 교육을 하거든요. 국어 수학 물리학 생물 역사 지리 그러다 보면 이제 중고 졸업하고 대학 와서 자기 전공하다 보면 배운 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엮어지지 않으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는 돼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 우리가 현실에 나와서 보면 우리 사회 우리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그런 하나의 전문 분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복합화돼 있고 융합돼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라든지 우리 국가의 지금 중요한 이슈들을 보시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가 막 바로 비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AB로 그냥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 CDF 변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융복합의 어떤 역량 종합화하는 역량이 없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다 보면 사실 사회 문제를 푸는 것 전 세계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아주 어려워지는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고된 지속가능 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또 그걸 새롭게 이름해서 트랜스 포밍 에디케이션의 페다고지 자체는 그렇게 분과 학년별로 이게 컴파트먼탈 라이산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우더라도 항상 융복합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지구의 문제 우리 인류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페다고지 자체도 좀 변혁적인 페다고지다. 그래서 사실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에서 늘 얘기할 때 트랜스포티브 페다고지 혹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용어를 좀 썼었거든요. 변혁적인 페다고지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그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우리 교사 양성 자체 4대 교대 그리고 교사 양성 자체가 분과 학문별로 많이 되어 초등은 조금 예외입니다마는 돼 있다보니 세계 시민교육을 하려고 하면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게 평소 배워왔던 방식으로 하면 더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이걸 제대로 이렇게 융복합 교육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고 같이 공부하는 것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당연히 이제 전문성을 위해서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 한 분야로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가 되는 거와 함께 이걸 엮어주는 사고 자체도 융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 이게 아마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전 지구적 문제 인류의 문제를 푸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이 던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질문이라고 그럴까 던지는 어떤 과제가 그런 거 아닐까.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교육 방법 패다구지에 플러스 해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도외시했던 융복합 통합적 사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더 중시해서 앞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석: 저도 대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참 그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기 분과 학문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취업과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이게 보면 왜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을까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표가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큰 시스템 안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것 하나로 귀결이 되다보니까 학생 개인도 그렇고 교사도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고 국가 교육 시스템도 사실은 그렇게 되고 그런 교사를 양성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하면 악순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트랜스포밍 에디케이션에서 어떻게 좀 고민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우탁: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궁극적인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까지 왔으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 자본주의라고 말씀하셨고 또 정치 측면에서 보면 민족국가 단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되는 거 분명히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양해를 구해야 할 게 국제기구가 생각보다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걸 선언적으로 좋은 거니까 던지긴 하는데 그걸 실행할 어떤 강제력이나 무슨 그걸 못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시스템 더 나은 정치 시스템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메시지는 던지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그걸 담아서 정말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런 UN 유네스

코의 역할은 국가의 혹은 기업의 이익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인류 전체가 가야 할 길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저도 똑같은 공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날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칠 때 쓰레기 덜 버리고 잘 분리수거하고 합니다까는 자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생산과 소비의 문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 여기에 와 닿는 거거든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런 걸 고민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 그게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의 핵심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되게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데 저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런 걸 분명히 담고 있다는 건 있는데 현실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씩 조금씩 더 그걸 꿈이라고 그럴까요. 원대한 어떤 기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측면이고요.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건 경제체재 경제 시스템 문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한 정치 시스템도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국민 국가 단위로 돼 있거든요. 한국인 우리 바로 옆에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돼 있고 관계도 서로 국가 이익에 따라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가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나오면서 특히 나폴레옹 이후에 민족주의가 퍼지면서 특히 유럽 사람들은 제국주의하면서 민족주의를 전 세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국주의로 나갔던 거고요. 반면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상해 임시정부든 독립지사들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똑같은 용어를 두고 지금 미국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이런 내셔널리즘에 있으니까 그걸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공동체로 나가면서 지금은 유럽 현 유니언으로 가면서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보다는 유럽 혹은 세계 이런 걸 좀 내다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화주의라고 그럴까요. 내셔널리즘이 강하고요. 한국도 식민지에서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다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국민을 하나 묶어서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인 거죠. 독립 국가를 찾고 경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뭐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동북아시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 제가 보고 세계에서 가장 내셔널리즘이 강한 지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아주 여기가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됐는데 저도 한국인으로서 정말 일본이나 중국이 양보를 하고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입장이라고 한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떠나기는 힘들지만 한국인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는 어떤 국제적인 분쟁 다툼이 전 지구적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지난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영토 주장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 어떤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핵전쟁으로 비하하면 그게 이제 결국은 두 나라의 핵전쟁이 아니고 이 지구가 모든 인류가 함께 공멸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핵무기가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게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이걸 이제 당장 국가 이익 우리 역사 이런 거 보면 울분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멀리 지구 밖에서 한번 내려다보면 사실 지구라는 거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지금 우주 천문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이 우주의 태양 같은 뭐라고 그 행성 별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죠.

허석: 엄청난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정우탁: 광대한 거죠. 뭐 우리는 정말 작은 곳에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큰 거시적인 걸 보지 않고 당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런 감정적인 대립과 이런 걸 하면서 기분 나쁘면 다 같이 공멸할 길을 가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둔한 인류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측면을 우리가 지금 다시 성찰해 보자 하는 게 사실은 세계 시민 교육이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나이브하고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처있는 현상이 1950년대도 아니고 지금은 거의 지구 어디선가의 국지전이 인류 전체의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 세계 시민의식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속가능 발전교육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소비하고 별로 이제 우리 에콜로지 우리 생태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 위주로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자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금 뭐 10년, 20년 내 인계점에 와 있다고 그러죠. 아마 1.5도 2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되돌리기가 힘들다 하는 건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서로 미루는 거죠. 미국이 하라 중국이 하라 그리고 서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으로 또 우둔하

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아니죠. 지구의 역사에서 한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건 대부분 행성이나 기후변화로 일어난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 다가오는데 이거는 인간이 아마 직접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나, 그런 각 국가별로 민족주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가 정당하다고 그냥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가 몰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생산하고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둬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아니라는 답은 나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이 또 교육에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이 이런 변혁적 교육을 통해서 이걸 여섯 번째 대멸종을 벗어나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어떤 교육보다도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보시는 분들은 개개인의 뭐라 그럴까요. 역량 강화 그러니까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대학 입시에 좋은 학교에 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맞는 거죠. 미시적으로 다 맞는 건데 만약에 이 지구 전체의 어떤 환경 문제 에콜로지의 어떤 파괴 그리고 이제 지구 뭐 이런 대멸종의 어떤 위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가 나이브하고 유토피아적이지만 이게 정말은 정말 더 우선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 교육에 잘 반영하고 또 토론하고 뭐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변혁적 교육 방법을 동원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석: 사실 이 대담도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교수님께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미래와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보자 평화를 우리가 그려보자 하는 그러한 큰 어떤 담대한 구상과 그런 담론들을 유엔이나 유네스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2015년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감하고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한 단계 진보적인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또 한 단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저도 고민을 하면서 들어진 생각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교를 공부를 하고 있고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우탁: 국제기구는 종교 단체 혹은 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UN유네스코에서 종교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UN에 파견도 하고 해서 관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UN이 굉장히 조심하는 측면도 있고요. 유네스코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생각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건데 앞으로는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UN유네스코 이런 걸 이제 국제기구라고 해서 영어로 인터네셔널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그러고 또 이게 멤버십 자체가 정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교부 이런 데서 파견 나와서 하니까 정부가 주주가 된 무슨 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오랫동안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날 각국의 모습 세계의 모습을 보면 국가 정부 국가의 힘뿐만 아니고 시민사회 시민 또 민간 기업 그리고 종교 종교단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45년 이후에 UN이 만들어지고 쭉 오면서 주로 국가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왔던 이 방식이 저는 SDG가 2030년에 종료가 되고 첫 번째가 MDG였고 두 번째가 SDG니까 한 세 번째 뭔가가 만들어질 때 지금은 그 용어를 모르니까 포스트 SDG라고 얘기를 하면 만들어질 때 정부 대표들하고만 이렇게 얘기해서 만들지 말고 종교단체 지난번에 SDG 만들 때는 시민사회단체는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도 대다수가 들어온 거라고 보기 힘들고, 어느 정도 국제기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만 들어왔는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저는 민간기업이 요즘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민간기업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포스트 SDG를 만들 때는 시민사회단체 정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들어와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주요한 ACT라고 하는 그룹은 다 목소리를 내고 다 같이 합의하는 그런 글로벌 목표가 글로벌 어젠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석: 박사님께서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원장을 6년간 맡으셨고 또 GPE를 지금 맡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우탁: 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마침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원장으로 가지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거의 6년간 두 번 연임을 하면서 원장을 지냈는데 그때 사실 그 타이밍을 보시면 2012년 9월에 반기문 총장님께서 세계시민 양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그 해 12월에 원장으로 가면서 아태교육원 제가 취임사에서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다가오는 유엔에 두 번째 글로벌 아젠다에 넣어야 되겠다는 취임사를 하면서 한 3년간은 그 일에 매진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게 정말 채택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런 얘기를 국내에서 꺼낼 때는 많은 분들이 왜 대한민국이 무슨 세계시민교육을 우리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마침 반 총장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당시에 유네스코 파리본부의 담당 국장이 세계시민교육을 맡아서 하는 담당 국장이 한국 분이었고요. 최수형 박사의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방콕의 아시아 지역 유네스코 본부장이 김강조 본부장이었고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유네스코 내에서 한 3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유네스코에서 이게 채택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게 2015년 5월 우리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이 담기게 되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아젠다로 한 3년 열심히 떼어서 넣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한 3, 4개월 후에 UN에서 20015년 9월 SDG 채택할 때 이게 당겨야 되는데 저는 뭐 UN에 별로 네트웍이 없으니까 그 당시 UN 대사하시던 오준 대사님 그리고 한충희 차석 대사한테 연락해서 좀 꼭 좀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두 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해가지고 2015년 9월 UN에서 SDG가 채택될 때 이게 들어갔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STT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글로벌 아젠다의 의제를 직접 설정한 첫 그 사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이 뭐 어 차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탑 세계 1위 하는 품목들이 꽤 많습니다마는 대개 이제 물질 분야인데 정신 분야라고 그럴까요. 이제 세계를 이끌어나갈 철학 아젠다 의제를 넣은 것은 이게 처음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제가 좀 바라는 거는 다음에 2030년 포스트 SDG 세 번째 글로벌 아젠다를 만들 때 좀 더 많은 우리 한국의 아이디어들 철학 이런 게 좀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포 에듀케이션이라는 GP라고 약칭해서 하는 단체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를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단체는 아주 가난한 나라 개도국 이 교육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학교를 만들어주고 교사를 양성하고 직업 훈련을 만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에 많이 매진을 하는데 GP는 크게 뭐라고 그럴까요. 국가 예산 A국가 아주 최빈국 예를 들면 캄보디아나 라오스의 교육 예산을 올리도록 권유하면서 그만큼 올리면 gp에서 1대1 매칭으로 그만큼 크게 매칭을 해주면 국가 예산을 올리는 만큼 교육예산을 올리는 만큼 또 그게 1 대 1로 또 GP 지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나라의 교육 예산을 좀 더 늘려가도록 유도를 하고 또 원조기관이 한 프로젝트만 하는 것 말고 컨소시엄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월드뱅크 ABB 그다음에 유세이드 자이카 코이카도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돈을 예를 들면 GP에서 100억을 내면 다 모아서 한 2천억 정도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또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ODA 방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역할이 한국 사회의 지피를 널리 알려서 좀 많이 알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가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최빈국 개도국이 발전하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개 이제 우리가 많이 원조하는 게 이제 영양실조 식량을 개인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고 보건위생 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걸 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활동은 계속 하더라도 그 국가가 최빈국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제가 보건데 교육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모든 가난한 어린이 아동도 교육을 받고 꿈을 실현할 수 있고 하면서 그 나라가 최빈국 가난한 나라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사례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교육 분야 oda가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교육 분야 ODA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봐야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자신 있게 GP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다 같이 협력해서 크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석: 그러니까 오늘 트랜스포밍 에디케이션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 2015년 UN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교육 분야의 두 가지의 아젠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아젠다가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우리 박사님께서 유네스코에서 물밑작업을 해 주셨다는 말씀 들으니까 더 감사하다는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는 또 교육 분야의 국제원조 단체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교육을 또 진행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불교에 이제 삼대 종법사님이신 대산 김대거 종사께서 전 세계가 정치적 UN이라고 하는 정치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정신의 어머니 같은 정신의 어떤 지도자 같은 UR 유나이티드 릴리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일찍 원불교가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꼭 원불교의 어떤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지구적인 국가 단위에 묶여져 있는 어떤 한계 민족적인 어떤 한계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자본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변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인간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변형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의 벽이 무너져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교육의 대상이 됐을 때 교육도 변형되고 어떤 다양한 팩트들도 변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담대한 어떤 구상들이 담길 때 어떤 종교적 메시지라든가 어떤 종교적 내용들도 반

드시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우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유네스코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헌장에 담은 유명한 글귀가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게 평화 전쟁을 막는 것 평화 또한 인간의 마음에서 구축해야 한다 이런 걸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심인설 인간의 마음에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평화 국가 간 평화 세계 평화까지 이어지는 가장 토대는 인어피스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그렇게 초안은 돼 있지만 그동안 유네스코 유엔에서 해 온 이런 활동들은 그런 쪽 부분은 사실은 손을 안 댔죠. 왜냐하면 인어피스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전문 영역으로 제가 보는데 이제 종교의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주로 유네스코에서 이제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제도 교육, 그러니까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학교가 바로 교육이고 교사가 바로 교육이다. 이게 워낙 또 그렇게 학교 못 가는 학생도 많고 교사 없는 부족한 나라도 많고 하니까 이제 주로 에듀케이션포멀 이라는 캐치 플레이스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거거든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변한 게 이번에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학교의 개념도 조금 바뀌는 것 고요 교사의 개념도 바뀌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처음 나오는 거지만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하고 교사가 퍼실리테이터 도와주는 사람의 촉진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거고 교육은 어디 모든 데서 유비키터스 곳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면서 굉장히 평생교육의 개념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걸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UN 유네스코에서 이런 교육에 관해서 다룰 때도 조금 그동안에 늘 전통적으로 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평화라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과연 그걸 구축할 수 있을지 그동안은 거의 그런 데 대한 거는 그냥 종교나 명상이나 이런 데 다 맡겼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손잡고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인어피스와 월드피스가 서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타당하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엔 유네스코가 종교와 대화를 해야되고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간 기업들이 요즘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어처럼 돼 있는 게 ESG라고 그래서 엠바로먼트 소셜 가버너스 해서 환경 지구 환경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투자를 못 받고 노동이나 인권에 존중하지 않는 기업도 투자를 못 받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기업들이 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이제 바로 돈과 관련되니까 이제 그게 관심을 받는데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SDG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와 거의 동일한 뿌리를 같이 두고 있고요. 또 트랜스 포밍 에듀케이션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하고도 같은 거니까 이제는 민간 기업 종교 정부 시민사회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까 교육도 융복합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이런 우리가 더 나은 미래 사회 공동체에 살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다음번 2030년 이후에 글로벌 아젠다를 만들 때는 저는 우리 종교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좋은 이런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석: 박사님과 이렇게 대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쓰셨어요. 보니까 세계시민교육과 SDGS 오늘 나왔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아마 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으시면 이 책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2년 9월에 UN에서 트랜스포밍 에디케이션 서밋이 열렸고 변역적인 교육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글로벌 이슈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직접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육을 받는 당사자 내지는 학부모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께 마무리 말씀으로 이런 큰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우탁: 두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데 하나는 저도 우주 천문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정말 충격이었죠.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지구가 45년 전에 나타났으니까 지구는 이 우주에서 굉장히 신도시에 가깝고요. 생명이 38억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한 78억 년은 생명이 없었고요.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룡까지 아주 고등생물로 진화를 했는데 그사이에 한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공룡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인간이 나타났는데 인간의 시조로 아주 따지고 들어가면 몇천만 년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인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언스로 가면 한 20만 년 30만 년 길게 잡아도 50만 년이 안 될 겁니다. 금방 한 제가 말씀드린 거 딱 보시면요. 우주의 역사에서부터 혹은 지구의 역사부터 45년 전부터 본다고 그러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쉽게 이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면 24시간으로 계산해서 23시 59분 57초 혹은 58초에 우리가 지구에 호모사피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한 3초 전에 지구에 나타나서 이 공간에 나타나서 워낙 지력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마 교육 덕분일 겁니다. 이렇게 각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산업화되고 하면서 이 지구를 어느 순간부터는 다 오염시키고 물도 오염시키고 공기도 오염시키고 다 망가뜨리고 나무도 다 베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전

23시 59분 57초까지 존재하던 생물들을 다 멸종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한 번 방송 보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겁니다. 이 지구에 조용히 와서 겸손하게 살다가 가는 게 맞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 요즘 많이 얘기되는 생태전환교육 이런 교육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아주 간단한 질문과 책인데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 싸우고 예를 들면 마사 누스바움이 미국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났다 이거죠.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예를 들면 다른 나라하고 원수처럼 싸운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걸 읽으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일본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중국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태어난 나라에 애국심 국가 이익 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건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한 번 오늘 들으시는 분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생각들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트랜스포밍 에디케이션 변혁적인 교육이 무엇이고 그런 변혁적 교육이 담고 있는 철학 그리고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런 변혁적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큰 의미와 하지만 한계를 또 어떻게 하면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여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당장 교육 현장에서는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지만 이런 고민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변화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미래를 살 수 있고 또 정말 아파하는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건강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마음속에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정우탁 박사님과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영광이었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션 6. 고위급 대담 - ICCGC Talks 2

"종교와 문명의 위기 : 글로벌 도전과 종교적 대응"

박 도 연
유엔종교NGO위원회 공동의장

아자 카람
Religions for Peace 사무총장

연사 소개
(패널) 박도연 (유엔종교NGO위원회 공동의장)
(패널) 아자 카람 (Religions for Peace 사무총장)

박도연: 반갑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참석하고 있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2022년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와 문명의 위기 글로벌 도전과 종교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아자카람 교수님과 대담을 나누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자카람 교수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사카람 교수님은 Religions For Peace 사무총장이시고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교의 종교 및 개발 교수님이십니다. Religions For Peace에 들어가시기 전에 교수님은 아랍 인류 개발 보고서에 코디네이터, 문화 수석고문, 종교 개발 외교에 대한 UN 전략적 학습 교류의 수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트레이너를 포함하여 UN에서 거의 20년간 종사하셨습니다. UN에 있으시는 동안 교수님께서는 UN 종교 및 개발 기구 간 태스크포스와 그 테스크포스에서 다종교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며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아자카람 교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카람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RFP가 최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활동을 포함해서 RFP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단체 소개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카람: 먼저 이런 자리에 기회를 주신 박도연 교무님과 주체 측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연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죠. 저는 교무님과 교무님이 몸담고 있는 단체와 종교 운동을 깊이 존경합니다. 교무님은 세계 교파 연합 RFP 이사직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저는 지금 제 상사와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각자의 종교 기관을 대표하는 60명 이상의 종교 지도자를 상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RFP입니다. UN 기관과 같은 것이지만 정치나 국가보다는 종교 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종교 기관과 신앙 모두를 포함합니다. 종교 신앙 공동체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모든 종교와 신앙이 제도적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신앙과 종교의 다양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FP는 독특한 조직입니다. 교황청이나 바티칸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세계 여러 지역의 토착민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고 함께 모으는 신앙의 영역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왜 RFP가 중요할까요. UN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전 세계 모든 시민과 신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기관들이 함께 모여 지난 50년간 운영하고 지지해

온 글로벌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법률적으로 사회적 결속을 구축하고 공공재,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공기, 환경, 평화, 안보, 인권, 모든 생물의 권리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의 신념 체계와 가치를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세상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숨 쉬는 공기가 다른 공기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공공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종교 기관과 신앙 공동체에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의 공동체가 온전히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종교 간 협의회를 소유하고 운영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고 이러한 섬김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는 이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다종교적인 섬김입니다.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이 아이디어는 모든 신앙 전통의 주요 정신이고 RFP가 함께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주요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중재, 평화 구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원, 종교와 믿음의 자유 특히 사상, 의식, 믿음의 자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과 여권 신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신앙 공동체가 이미 동의한 모든 인간의 목소리와 존엄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신앙 공동체가 이미 동의한 모든 인간의 복지와 존엄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의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3개 정부가 합의했던 17개의 국제 개발 목표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RFP의 전략적 의제가 되고 이 17개의 목표가 만들어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불리기 전에도 이미 그래왔습니다. 언제나 평화, 공공의 선, 복지를 위해 협력하는 종교의 약속이었습니다.

박도연: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RFP의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입니다. 교수님의 비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아시다시피 원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데, 교수님께서 이를 상호 연결성이라고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수님이 모두를 위한 다종교적 섬김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협력은 우리가 홀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홀로 치유 받을 수도 없다는 그런 저의 신념과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카람: 저는 교무님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2019년, 12월에 우리가 RFP가 헌신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모님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함께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무님은 이 공동 소유자이자 RFP 작업에 대한 공동 설계자시죠. 그래서 우리 작업이 정말 독특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뉴욕의 한 집단이 모여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뉴욕에서 국제 사무국으로 해야 할 일 책임 우리 임무는 모든 사람과 함께 전달하고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일에 대한 틀을 함께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박도연: 네 모든 인류를 위한 이 위대한 비전에 함께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사회 정의, 국제 분쟁과 같이 주목하고 해결해야 하는 다른 시급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지도력 부재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의 지도력 부재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종교 단체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종교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더 잘 대응해야 할까요?

카람: 저는 종교 공동체의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교 개발 교수로서 제가 분석한 부분을 답변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연구자로서, 이 분야의 학생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강조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종교 공동체가 이미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이 더해지고 앞으로 더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극도로 취약한 글로벌 공중보건 인프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그리고 직면하게 될 모든 질병이 우리가 우려하게 될 주요 원인이 될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공중보건 팬데믹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공중보건 기반 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또 극적으로 파멸시켜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홍수로 인해 초토화되고 고통받는 이 지구를 보면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다른 그런 인프라들을 발전시키면서 지구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적어도 하나 아니면 여러 개의 무력 충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갈등이 아니라 무력 충돌이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많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주요한 위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전 세계 모두가 동시에 직면하고 누구 하나 더 크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시에 직면하고 있죠. 세계의 어떤 한 지역이나 무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주의적 재난이나 재앙의 만남에서 항상 최초로 대응한 사람들, 그 단체들은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종교 기관은 인도주의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세계 곳곳에서 항상 최초의 대응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존에 기관 학교 진료소 위생기관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종교 기관과 종교 단체들이 했던 역할들입니다. 사실 태고 적부터 이는 종교 기관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병원도 교회 모스크, 회당 이런 내부에 세워졌고요. 아시다시피 최초의 학교도 아직까지도 교회나 모스크, 사원, 회당 안에서 세우고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개발 서비스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일은 태고적부터 종교기관의 본연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종교기관에게 더 일을 많이 하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입니다. 사실 정부와 국가기반시설인 공공 서비스가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중보건 서비스가 취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규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 서비스와 기반 시설에 더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교 기관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기관은 이미 1천% 이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의견들이 그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말이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인데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기관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이 모든 기관에 존재하는 이 자부심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 민간 부문 기관, 시민사회 기관, 종교 기관, 모든 기관의 자부심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해야되고, 내 영역이어야 되고, 내 단체가 이걸 해야된다, 내 기관이 이걸 해야된다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이런 프라이드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종교 단체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프라이드 문화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그 기관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어떤 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고 이게 내 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거다. 우리 단체가 이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영향을 만들고 있다. 이런 프라이드의 문화, 이런 세력권에 대한 문화는 정부, 정부 간, 비정부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역에 자신의 단체, 자신의 기관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기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 함께 한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X조직이 했다. Y기관이 했다. Z라는 단체 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일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어떤 서비스들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일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죠.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종교 인도주의 기금 한 거죠. 원래 여러 종교는 함께 협력해야 했기에 원래 필요하지 않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 기관이 세계적인 공공 위기의 시기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교섭하고 촉진하고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함께 협력해서 모두를 섬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어떤 그런 가치를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촉진시키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협업을 장려해야 했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eed Funding이 있는데 종교 기관이 가장 그런 많은 펀딩과 자원이 있는 그런 큰 종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이런 공동 협업 작업에 투자할 준비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준비되지 않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도전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함께 하지 않을까요. 같은 집단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돕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도연: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였습니다. 문화적인 프라이드라는 개념을 언급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될 문제 가치인데요. 사실 조금 찔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원불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성찰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셔서 정말 좋았고요. 왜 우리가 기관 내 단체 이런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좀 더 함께 전체적으로 함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 기관으로서 종교 공동체로서 어떻게 세계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많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UN을 몸담고 계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RFP의 사무총장으로서 이 세계의 사회 정의와 치유 실현을 위해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많은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혹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카람: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종교 인도주의 기금을 조성할 때의 경험을 예를 들면 두 가지가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이걸 조성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그렇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크고 가장 잘 갖춰져 있고 자원이 매우 풍부한 그런 종교 기관조차 서로에게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자금 지원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함께 협력하고자 하고 이런 전 세계적인 공공의 속에서도 놀라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성과 청년들이었죠. 이 마음 챙김과 함께 일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훌륭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종교 기관과 그들의 지도력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물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지원하고 이들이 존속해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꼭 최고위급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지지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리더들이 우리 여성과 청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성 소년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더욱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하고 함께 일하기로 결심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함께 일하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협력이라는 것을 다시 통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가 함께 일하고 모두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를 섬기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 안에서 각자의 힘으로 모일 수 있는 곳에서 구하고자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여성과 청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또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박도연: 네 좋습니다. 항상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런 책임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많은 영역들이 있고 그중 하나는 원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그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이런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치관과 태도를 알려주는 책임 있는 세계 시민의식과 평화, 인권, 지속 가능, 발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시민 교육은 이상적인 가치일까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카람: 네 그럼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잘못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각 국가의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서로 섬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 시민의 개념은 우리가 속한 국가의 경계를 조성하면서도 이러한 국가적인 맥락이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을 때만 존재하고 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격변의 여러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강력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시민들이 어떻게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초월하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시민 개념의 원칙입니다. 세계 시민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국경을 넘어서는 섬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8천만 명이 난민입니다. 국가가 없고 집이 없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나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의 개념을 더욱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국가의 국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국가의 경계선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국가의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고려돼야 합니다. 모두가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사는 땅도 동등하게 돌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권리 역시 중요합니다. 한 국가의 시민의 권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게 도전과제인데요. 국가들 중에 자국민 보호에 집중하지만 동등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는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국민이 아니면 동등하게 돌봐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세계 시민 의식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의 시민은 국경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이에 대한 중요한 일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한 국가에 제한되지 않잖아요. 종교의 가치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가 위치한 국가를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국가 내의 그 사람들만 섬겨야 한다는 건 아닐 겁니다. 종교, 종교적 가치 그리고 기관, 제도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바로 그래서 모든 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모두를 섬기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한 교회가 가 위치한 사람들뿐 아니라 국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고 싶다면, 모두를 섬기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죠?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모스크 아니면 다른 기관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다양한 여러 종교와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모두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존재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초월하는 종교 간 협력

고 그 목표는 모두의 안녕입니다. 모두의 웰빙입니다. 국가적 존재가 여러 종교가 협력을 한다고 위협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섬김이거든요. 한 공동체의, 종교적 소수의 또는 대다수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 협력은 하나의 종교가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그 종교의 구성원만을 섬기는 것과 다르죠. 그건 문제고, 그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러 종교가 함께 한다면 함께 한다면 그게 위협이 될 일이 있을까요?

박도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경계선의 초월에 대해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초월을 해야합니다. 경계를 넘어서고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더 생각하고 일상의 그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우리 교육의 혁신이라는 것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려면 피할 수 없는 필요한 주제인데요. UN에선 교육 정상화인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이 77회 총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열렸습니다. 원불교의 경우 컨퍼런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공동체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의식에 대한 변혁적 교육과 SDG가 그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공동체가 시민의식에 대한 변혁적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카람: 제가 이 분야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요. 종교가 교육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리가토 재단 그리고 아동을 위한 종교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하는 일을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 시스템 그 자체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문화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신과 영혼을 어릴 때부터 기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하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고, 결국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는 걸까요? 어떻게 인지하고 의식할 수 있을까요? 변혁적 교육의 관건이 이것이 아닐까요? 커리큘럼이나 학교 인프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키우는 것이, 함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하나 됨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변혁적 교육에 영감을 주고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이 맥락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의식을 키우고 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저 아이들이 7살부터 11살까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관건이죠. 의식을 키우는 여정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식을 잘하게 할까요. 어떻게 다양한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까요.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결국 의식이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는 목표가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같이 간다는 목표를 보면 진짜 좋은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현재 교육 시스템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의식 수준을 달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현재 교육 분야의 여러 갭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보면 아이들에게 종교에 대해 잘 가르치지 않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강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종교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 걱정합니다. 내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 아이들이 배울까 봐 걱정합니다. 먼저 우리부터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처럼 교육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듯합니다. 특히 종교와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예 가르치지 말고 정말 기본만 가르치자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자기 종교만 가르치자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관점마다 나름의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다른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서로의 종교와 가치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교 자신의 영역에서만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서로의 신앙에, 전통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믿음의 신앙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세계 인권 선언은 보편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께서 이 사실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인권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신앙과 공동의 가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잘 모르는 분도 모르는 분도 있다는 뜻이죠. 제 생각에 우리가 세계적인 차원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무척 전통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라났고 이직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종교에 대한 수업을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어색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무슬림 반이 있고 크리스천 반이 있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땅 위에 살아가고 있고 같은 가치를 품고 자라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나누는 거지? 아침에 공조하면 같이 국가를 부르는데 종교 수업을 왜 따로 받는 거지? 다른 반 애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왜 나는 모르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종교와 종교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분류를 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모델입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자는 모델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잘못한 거죠. 과연 어떤 가치를 가르치나요. 여러분 물의 염도에 대해 배울 때 물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바다에 소금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물의 염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가치를 이해하려 할 때 그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면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냥 가치만, 윤리만 가르치고 종교는 안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런 물과 염분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바다에 염분이 있다는 건 안 배우는 거나 같아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비유는 이 정도인데 더 많은 좋은 비유들이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종교들에 대해 가르쳐야 해요. 기본적인 인식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 여러 가지 신앙이 있고, 그 신앙들의 가치가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창조와 창조자를 생각했을 때 신앙의 다양성을 보게 되고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박도연: 시작하면서 문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식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불교적 관점에서 인지, 자각, 의식 등은 중요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항상 바깥에서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정말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개인으로서, 원불교의 구성원으로서 더 오래 고민해야 할 내용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도연: 이제 조금 간단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 간단하다고 항상 답이 간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종교적 가치와 실천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다양한 종교 공동체와 평화 정의 그리고 화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람: 저는 Religions For Peace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종교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영향력의 힘은 강하다고 믿고요. 여러 종교적 실천은 강력한 행동을 하고 태도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갖습니다. 종교의 가치 그리고 실천이 갖는 영향력은 가장 강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본 적도 있고, 저도 그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를 보시면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죠. 그래도 제 눈에는요. 종교의 역할이 보입니다. 종교적 가치는 강력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안 믿죠. 그분들의 눈에 보는 행동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실천과 행동에는 연결고리가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해야 할 질문은 달라집니다. 종교가 영향을 주느냐가 아니고요. 종교가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요. 유감스럽지만 행동 변화에 대한 세속적인 특징이 강하죠. 어떤 분들은 마치 종교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제대로 나타내는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교가 어떻게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줄까요. 여러 연구를 찾아보려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종교 기관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할 때 공동체를 같이 섬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린 그걸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 수준을 어린 시절부터, 초기부터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건 교육 그리고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할 때 공동의 선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종교 기관과 신앙인의 책임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함께 모두를 섬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를 섬기되 함께 섬겨야 한다는 뜻이죠. 단순히 카톨릭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개신교가, 불교가 따로따로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있겠죠. 물론 그런 노력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이 협력할 때,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복지와 존엄을 위해 함께 한다면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지금으로서는 기울이지 못하고 있죠.

박도연: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공감이 가기도 하고요. 생생한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제 생각에 그 동일한 헌신과 열정을 UN컨퍼런스 룸에서 처음 뵈었을 때 느낀 것 같아요. 10년 정도 아니다, 이제 15년 정도 됐을까요. 당시 다른 분과 함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카람: 네 기억합니다.

박도연: 두 분은 제게는 롤모델이세요. 여성으로서 리더로서. 영적으로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요. 그 존재감 자체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성취를 여러 분야에서 이루셨잖아요. UN에서 일하셨고요 NGO,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어떤 조언을 다음 세대의 종교 평화 운동가들에게 주시겠어요?

카람: 맹렬하게 사랑하세요. 그저 맹렬하게 사랑을 하세요. 우리에게 다른 힘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모든 숨 쉬는 것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강력합니다. 나무, 풀, 노래 등등 모두를 맹렬히 사랑해 주세요. 모두를 맹렬하게 사랑하세요. 그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분야의 사람이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다른 것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죠. 전 세계가 나르시즘으로 인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맹렬하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냐고 하죠. 제 생각에는 사랑이 남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으로 그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도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낳습니다.

박도연: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6주 정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지 않았나요. 바쁘셨을 거예요. 일과 내적 평화, inner peace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적 평화를 어떻게 지킬까요.

카람: 제가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네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솔직히 그 부분을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하거든요. 맹렬하게 사랑하라고 조언을 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스스로를 존중해 줘야 해요. 그러려면 스스로를 잘 돌봐줘야겠죠. 솔직히 이 부분이 제 전문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가 살면서 배워야 할 점 중 나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섬김을 계속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죠. 강렬한 사랑을 하려면 스스로 돌봐줘야 해요. 이건 여성에게 특히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어쩌면 연령에 따라서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고 돌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만 주는 행위에는 받는 행위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줘야지 그것도 허락이 필요해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강력한 메시지네요”라고 했을 때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지혜와 친절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부분이 있죠. 그냥 받는 것, 그저 친절을 받는 것, 그것도 노력이고 기술일 수 있겠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이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서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주고받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이것은 상호적이고 모든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도연: 매우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해주시고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종교적 믿음뿐 아니라 더욱 모두의 선을 향한 믿음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람: 감사합니다.

박도연: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평화, 화합 그리고 정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징 세션. 종합토론

"평화를 위한 종교연합 : 미래를 위한 포콜라레 운동과 종교연합운동"

조 경 원
한울안신문 편집장

사 영 인
원불교 유엔사무소장

이 순 영
한국 포콜라레 종교 간 대화 고문

연사 소개

(좌장) 조경원 (한울안신문 편집장)
(패널) 사영인 (원불교 유엔사무소장, ICCGC 공동의장)
이순영 (한국 포콜라레 종교 간 대화 고문)

*안내 :
1) 클로징 세션 종합토론은 폐회사를 대체합니다.

조경원: 반갑습니다 한울안신문 편집장 조경원 교무입니다. 2022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게 돼 영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물질문명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 사회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또 인간 내면의 도덕성 상실은 영적 빈곤과 무지가 만연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3년간 지속된 팬데믹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새로운 체제에서 협력과 신뢰를 통해 이룩한 평화의 균열을 일으켰는데요.
인종차별과 혐오 폭력 등은 전쟁과 질병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성과 도덕성 회복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와 제도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종교계는 이보다 더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연대와 통합의 길을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가톨릭의 포콜라레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끼아라 루빅이 창설해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했습니다. 다양성 일치 협력의 키워드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요.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실현하고자 복음 정신, 공동체 정신, 연대성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불교의 종교연합운동은 1970년 일본에서 열린 제1차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원불교 3대 종법사 대산종사의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종교연합기구 설립을 제안한 이후 인류 공동 번영의 해법으로 종교 간 협력을 넘어 문명 간 대화를 통해 세계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사회정의 실현과 세계 평화를 위한 가톨릭 포콜라레 운동과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활동 상황을 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활동 방향과 계획에 관해 형식적인 담론을 뛰어넘어 실천 지향적인 관점에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순영 포콜라레 운동 종교간 대화 고문께 포콜라레 운동의 활동 상황과 코로나 이후 활동 방향을 여쭙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이순영: 저는 간단히 두 마디로 소개를 한다면 한국의 포콜라레 운동이 알려진 당시에 초창기에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포콜라레를 태어난 이후 동반해 왔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저는 포콜라레 운동에 국제본부가 있는 이태리 로마에서 특히 종교 간 대화의 발전을 위해서 불교 이슬람 유대교 등 이런 활동을 한 30여 년 하고 그다음에 귀국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우리들이 다 겪은 팬데믹이라는 경험은 우리 앞에 우리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그 모순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얼마큼 많은 불균형이 존재하는가 여러 분야에서 크게는 민족들 사이 문화권 사이 그 다음에는 한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불균형을 드러나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서로 얼마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단지 인간들의 사회 뿐만 아니라 자연, 사회와도 마찬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태환경을 얼마큼 파괴시켰는가 이것도 크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결국은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다. 이런 결과를 우리 눈 앞에 우리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포콜라레 운동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분쟁 불균형 이러한 앞에서 대화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역사의 도전 앞에 열고 다른 모든 일과 대화에 열려 있고 지금 오늘의 인류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고통이 있는가 여기에 열려 있어야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현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 시대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자 그 부르짖음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었어요.

한 가지는 그 인류의 고통 받는 인류의 부르짖음 또 하나는 지구의 부르짖음 그 세 번째는 새 시대 젊은이들의 부르짖음 여기에 발맞춰서 여기에 따른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각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인류 그 지구를 끌어안기 위해서 360도로 다각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되고 실천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이의 일치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가족으로 만드는 그것을 방향으로 해서 나아가자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조경원: 이어서 사영인 유엔사무소장님의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영인: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을 활동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불교 유엔사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사영인 교무입니다. 오늘 ICCGC 마지막 시간을 평소 제가 존경하고 있는 우리 포클라레의 종교 대화관 모임 고문을 맡고 계신 이순영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포클라레 운동에서도 젊은 세대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작년 올해 종교연합운동의 주요 방향도 어떻게 하면 MZ 세대 젊은 세대들이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에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실천 운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젊은 차세대 예비 종교 성직자들 그러니까 뉴욕에서 과정을 받고 있는 기독교 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바하교등 젊은 예비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신앙과 수행에 대한 차이점을 공유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이런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혹은 수행인들이 어떻게 하면 평화와 사랑 그리고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지 실천행을 찾아보는 또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포럼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런 포럼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유엔처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원불교 종교연합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거의 엔지오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봉공재단 또 한울안 운동 또 환경 우리 그 보호 환경 단체 그래서 국내와 국외의 재난 구호단체 구호 활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또 우크라이나에서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 미얀마 난민 지원 그리고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서의 교육 지원 사업, 환경에 대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행동 지침들을 공유하고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직접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 왔는데요.

저희 종교연합운동에서는 종교의 영성이 어떻게 하면 시민운동으로 함께 연대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종교 연합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함께 방법도 찾고 또 활동도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조경원: 사영인 소장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원불교는 mz 세대와 차세대 예비 성직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여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내 재난재해 구호 활동 그리고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활동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콜라레 운동과 종교연합 운동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종교 연합 운동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영인: 우리 모두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은 다르고 또 마음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영성의 세계는 그런 갈등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이 영성호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종교의 영성이 시민운동과 연대를 해서 지구촌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려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세계 시민 교육이 ur아카데미라는 어떤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아카데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유알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봄과 가을에 두 번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이신 박도광 교수님께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종교와 문명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정우탁 교수님께서 세계시민 교육의 동향과 유엔 테스에 대한 리뷰 시간을 함께 공유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시민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께서는 세계가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공동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과 종교 영성이 함께 이어져서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세계 시민교육이 아니라 그런 치유와 그리고 갈등을 직면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 시민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알아카데미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ur 아카데미 교육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이어서 이순영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저희 포콜라레에서도 그러니까 사회 여러 영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술계라 그럴까 저희 이 포콜라레 안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뮤직 그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근에 만든 노래를 제가 한 번 들었는데 제목이 위추스피스 우리는 평화를 선택한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평화 안에서 살 수 없을 거다. 우리는 서로 원수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은 나는 그와는 다른 것을 선택한다 이래가지고 자기 환경 안에서 분쟁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도록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한국어 자막이 있는 그것도 나와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잖아요.

이제 저희 포콜라레에서도 예를 들면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는 우크라이나하고 이 국경이 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많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콜라레의 시설을 열어준다든지 그게 불충분할 때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집까지도 열어가지고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데는요. 거기 아마존의 밀림이 유명한데 여기에 문제 중에 뭐냐 하면 청소년들의 성폭력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아동들을 위한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학대를 예방하는 그런 의식을 키우는 교육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도 거기에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든지 이태리에서는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레바논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베이루트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거는 큰 스케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한 의사가 그쪽의 의약품이 모자란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태리에서 의약품을 모아서 보냈다든지 이런 여러 방면에서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어려움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좋은 체험을 모아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용기를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우리가 행복마을이라는 그런 걸 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면 의료 혜택도 준다든지 음식이나 의복 같은 것도 나눠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수원이나 논산 같은 곳에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것도 각자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예인데 인디아나폴리스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 그 도시에 그 문제가 그 지하수의 문제였는가 봐요 공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하수

가 오염이 되었는데 이거를 정화시키는 사업을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해서 지금은 그 도시 전체에서 정화 작업을 위해서 정화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예도 있고 이 한국에서도 이 정신을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각자가 자기 환경 안에서 필요한 거를 여러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은 지난번에 KCRP에서도 이야기를 한 번 들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게 환경보호라는 것이 큰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도 그런 정책을 세울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실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각자가 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때는 작은 예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kcrp에 그 이번에 환경위원회가 하나 생겨났는데 거기 꼭 한 사람 보내달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것은 한 9월 후반에 이태리 아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경제대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어떤 걸 느끼셨는가 하면 우리의 경제가 평화를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경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는 게 쉽다 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시지라는 성 프란치스코가 유명한 곳인데 이거를 2~3년 전부터 하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9월에 그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포콜라레에서도 이런 경제 개념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일하고 있는 포콜라레의 경제학자 한 분이 여기에서도 학술적인 그런 지도 역할을 맡아서 포콜라레에서도 참여하면서 포클라레뿐만 아니라 이건 가톨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군데서 종교와 관계없이 이런 것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경제인들을 모아서 수백 명이 참가한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바로 끝났는데 이런 면에서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돕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이에 대응하는 원불교와 카톨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마무리 발언을 요청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영 고문님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 대화라는 것은 제가 우리 포콜라레 운동에 결국은 우리 영성 우리 생활의 방식이라고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암 그리고 물론 거기에 따른 영성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 대화라는 것은 이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란 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인간의 구조 자체가 이것이 존재론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갈등의 사회라고 그런 그런 얘기도 하고 싶거든요.

너무나 여러 종류의 갈등이 특히 미디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에는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이런 대화를 위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원불교뿐만 아니라 포콜라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룹을 함께 모아서 또 이론적인 이야기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종교간 대화에서도 많은 그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좋은 실천을 함께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부터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도 많이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원: 사영인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영인: 우리 이순영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실천 운동을 강조하시고 협력하자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80여 년 전에 포콜라레 운동을 창설하신 키아라 루빅 여사님께서는 그 당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죠. 폭탄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어떤 이상이 있을까 이런 내면의 질문을 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동시대를 사르셨던 저희 원불교의 대산종사님께서도 그 생명을 앗아가는 폭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어떤 마음에 폭탄이 뻥 터지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선각자적인 삶을 사셨던 그런 분들의 그런 이상 그리고 꿈이 저희 후진들 후세대들을 통해서 실천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ICCGC에 포콜라레에서는 처음부터 함께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년에도 저희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공동 주최자로 함께 해 주시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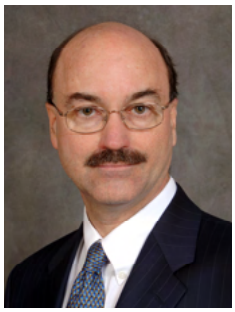
이순영: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목표로 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힘을 모으고 우리의 그 이상은 뭐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유토피아적인 그런 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큰 그 원대한 계획이라고 그럴까 전 인류를 향한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고 이제 우리가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 편에서도 가능한 한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조금 더 힘을 합해서

나아가고 싶고 이것이 틀림없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이렇게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모범이랄까 이런 예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인: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2022년 iccgc 처음부터 이틀 동안 2일 동안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시의적절한 기조 강연 회복적 사회 정의로 기조 강연을 열어주신 우리 마크 유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아자카람 사무총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ICCGC 행사를 충만된 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또 어떤 인류의 영적 성장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WFBY 세계불교도의 청년회 팀들에게도 정말 기대도 거는 기대도 크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경원: 감사합니다. 내년 종교연합 세계 시민 회의에서는 카톨릭과 또 원볼교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또 이순영 고문님께서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이어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22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마지막 세션 평화를 위한 종교연합을 마치겠습니다.

특별 에세이



레오 르페뷔르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前 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회장

세계의 외침을 듣고, 세계의 상처를 함께 치유합시다!

- 코로나19 이후 지구촌 시민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

현재의 상황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수많은 사망과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는 진정한 세계적 재앙이다. 수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많은 환자들은 계속되는 COVID-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바이러스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 만연한 허위 정보는 백신에 대한 불신과 공중 보건 예방 조치를 옹호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격렬한 적대감을 야기했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아시아계 혈통의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받게 하면서 희생양을 찾고 있다. 일부 지역사회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인구는 적절한 의료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세계가 어떻게, 언제 이 위기에서 벗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이 대유행의 미래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광범위한 불안감을 야기한다. 전염병은 상호 연결된 세계의 취약성과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두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은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에 빠르게 접근하는 반면 저개발 국가들은 공급이 제한되고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등 우리 세계의 고통스러운 분열을 드러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종종 더 부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경제적 상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온라인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다. 서비스업, 관광업, 여행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생계는 갑자기 중단되었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위기는 심화되고 있는 생태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 공동체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발생한다. 매주 새로운 과학 보고서들은 많은 형태의 생명체들의 지속적인 파괴를 기록하고 온난화 기후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 경고한다. 만약 기온이 현재 예측되는 속도로 계속 상승한다면, 많은 지역에서 인간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다. 세계 시민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권이 이보다 더 절실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이 시기에 국가 및 종교 간의 경쟁과 분노는 종종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종종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국제사회나 지구상의 생명체 전체가 아닌 오직 그들 자신의 나라의 시민으로 본다.

종교적 전통의 역할

종교적 전통은 차이를 존중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평화를 만들고, 갈등을 변화시키는 가치와 관행을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에 영감을 받은 종교적 행위자들은 이해, 관대함, 그리고 치유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계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 종교적 전통의 역할은 모호해 왔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종교 및 국가 지도자들은 전통의 최선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적 정체성을 갈등의 표시로 사용하고 인종, 종교, 민족주의적 고정관념을 얽으면서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했다. 일부 종교인들은 전통적인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념적 무기로 과시했다. 민족 종교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시민권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는 엄청난 저주이다. 나의 미국의 맥락에서 이러한 위협은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혈통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백인 기독교 인종차별주의 민족주의로 나타난다. 모든 종교적 전

통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권은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핵심 교육: 보살의 길과 기독교 제자들의 길

시민권에 대한 부적응적인 개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권력과 이익의 끊임없는 추구에 도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행성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 종교 전통의 지혜를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새로운 중요성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의 첫 번째 숭고한 진리는 우리에게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라고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다른 인간의 고통과 다른 형태의 생명체의 파괴에 눈이 먼 시기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계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 제2의 고귀한 진리는 우리의 잘못된 자기 이해와 억제되지 않은 갈망이 불필요한 고통의 근원임을 인식하라고 충고한다. 억제되지 않은 탐욕과 권력에 대한 탐구가 우리의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다. 희망이 순진해 보일 수 있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약속하고, 네 번째 고귀한 진리는 해방의 실질적인 길을 제시한다.

불교와 기독교의 전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자기 기만의 경향이 있다고 경고한다. 불교도들은 망상, 갈망, 증오의 세 가지 독에 대해 가르친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행복과 안전을 찾기를 바라는 것들과 사람들을 붙잡는다. 이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까지 그 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기독교인들은 원죄가 선을 보고 행하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킨다고 가르친다.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은 언어로, 기독교인들은 무지, 양심, 악의를 죄의 근원으로 묘사해왔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하나님과 다른 인간들과,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연합을 부르짖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직면하여 불교와 기독교의 전통은 다른 많은 종교적 길들과 함께 우리에게 고통이 발생하는 곳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각각의 길의 중심적인 가치로부터 연민으로 대응하도록 도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지혜는 다른 많은 종교적 길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의 측면에도 깊은 반향을 일으킨다. 종교 간 대화에서 우리는 세계 시민 사회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적 관점과 가치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

남의 고통에 무관심한 오늘날 우리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연화경은 세상 곳곳에서 고통의 외침을 듣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연민으로 치유하기 위해 적절하고 능숙한 방법을 사용하는 석가모니 부처와 보살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보살은 진심 어린 동정에 감동하고, 큰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살아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든 것을 깊이 헤아립니다." 『연화경』 제25장에서는 불교도들이 세상의 외침을 듣는 사람으로 숭배하는 관음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녀가 세상을 돕기 위해 1,000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묘사하고 있다.

서기 7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왔을 때, 그들은 대승 불교의 관점을 배웠고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예수에 대한 신선한 비전을 제시했다: "메시아는 부처와 나랏빛에 의해 궤도를 돌았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고통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가르치기 시작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나사렛의 마리아는 연민과 치유의 인물이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고통의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와 관음,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치유 지혜와 연민이 절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부처 모두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막 2:17). 부처님의 사대부실은 우리의 병세와 그 원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제시하고 치료를 약속하며 치유의 길을 제시한다. 불교도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이해와 우정의 향상은 우리의 지구를 돌보기 위한 협력적인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건설적 대응

세계 시민권에 기여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건설적인 모델 중 하나는 2021년 10월 4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 및 과학 지도자들과 만난 것이다: "신앙과 과학: COP26을 향해." 교황청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6)를 준비하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 주재 교황청 대사관과 함께 이 총회를 소집했다. 이러한 종교 간 및 과학 지도자들은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종교 실천가들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설득력 있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 지도자들은 그들의 "서로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라는 우리의 요구를 인식하고, 함께 걷고 싶은 욕망"을 공언한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무시되거나 위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명백해야 하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자연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생명을 주는 힘이기도 하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 유대는 인간 가족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환경을 돌보는 의무,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지구와 그 자원의 무한한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종종 자연 세계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은 현재의 위기를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윤리적, 정신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항소문은 과학계의 경고가 갈수록 불길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명에 따르면 종교계와 과학계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생태 위기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인류 전체를 위해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긴급히 호소한다. 그들은 COVD-19의 현재 위기를 태도와 가치관의 전환을 위한 시간으로 해석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맹위를 떨치면서, 2021년은 이 위기를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재고하는 기회로 바꾸는 중요한 도전을 제시한다." 이것은 경제적 사고를 바꾸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영구적인 성장이 가치라는 환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지도자들은 가족에서 종교 및 교육 기관을 거쳐 금융 및 정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계층이 생태적 전환을 거쳐 "돌봄과 협력의 문화"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우리의 공통된 집인 지구를 돌보라는 감동적인 호소로 끝을 맺는다: "우리가 이 귀중한 기회를 낭비한다면 미래 세대는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원을 물려받았으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광야를 남겨서는 안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총회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추가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 전통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말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심오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어떤 생명체도 자급자족할 수 없다; 그들은 오직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언급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상호연결성의 근본적인 현실에 비추어 우리 공동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돌보기 위해 유대감을 만들고 사람들을 더 깊은 관계로 끌어들이는 사랑의 발전을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창조,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과 과학 사이의 존중을 부르짖음으로써 끝을 맺었다.

피실험자의 성찬식

생태적, 환경적 위기를 형성하는 가장 비극적인 요인 중 하나는 자연과 인적 자원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행이다. 끊임없는 경제적 기대의 압박에 의해, 인간은 종종 지구상의 생명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의 의식 없이 이익과 권력을 위해 점점 더 압력을 가한다. 세계 시민권은 우리가 이 지구상의 생명체 전체에 대한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시야의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한다.

고인이 된 가톨릭 신학자이자 지질학자인 토마스 베리는 종교 간 이해와 지구에 대한 관심을 통합하는 데 지도자였다. 그는 자연 세계를 착취 대상이 아닌 주체의 교감으로 봄으로써 모든 종교적 전통의 추종자들이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도록 도전했다. 그는 다양한 생물들 이전에 매우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을 회상했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 들판과 나무, 꽃, 새와 나비, 바다와 하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들과 거의 의미 있는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다." 아이들은 다양한 생물들과 우정을 경험하고 어른들도 그렇게 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많은 불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친숙함을 공유했다. 정봉길은 원불교로 알려진 운동을 시작하면서 소태산은 "우주의 모든 것은 달마카야 부처의 우주적인 육체의 발현"이라고 가르쳤다. 소태산과 그의 추종자들은 인간 생명의 모든 근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과 모든 중생들의 부처의 본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혜에 비추어 원불교도들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는 곧 은혜로 인정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혜택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늘과 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베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엄격하게 상호 의존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는 지구 전체의 모든 동반자들 없이는 어떠한 적절한 방식으로도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 이 더 큰 공동체가 우리의 더 큰 자아를 구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지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더 큰 자아를 탐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서구 사회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우선시하고,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착취하고, 그로 인해 지구상의 주체들의 교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켜 왔다고 한탄했다. 베리는 이러한 근시안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종의 멸종에 대해 경고했다. 불교적 가치에 강하게 동의하는 언어로 베리는 "인간과 우주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우주와의 통일의 범위에서만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성취를 발견합니다."

불교-기독교 대화는 생태적 안녕에 대한 관점과 가치의 융합으로 인해 세계 시민사회 형성에 뚜렷한 기여를 하고 있다. 두 전통 모두 우리의 이기적인 이익과 국가 정체성을 넘어 시야를 넓히도록 도전한다. 두 전통 모두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상호 의존성과 지혜와 연민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이기적인 행동의 파괴성을 경고하고 관대함, 감사함, 연민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